



# THE TIME HAS COME

이제 때가 왔습니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08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08

인생 70년, 개교 인천



## 2015. 10. 6-11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지구

티켓 가격은 순차적으로 인상되오니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2015presidentcup.com

f '2015 프레지던트컵' 검색 후 친구 추가



### 2015 프레지던트컵

이민정

# 내 맘에 맞는 이 \_ 1927년

정지용

당신은 내 맘에 꼭 맞는 이.  
 잘난 남보다 조그마치만  
 어리둥절 어리석은 척  
 옛사람처럼 사람 좋게 웃어 줘 보시오.  
 이리 좀 돌고 저리 좀 돌아 보시오.  
 코 쥐고 뽕뽕이 치다 절 한 번만 합쇼.

호. 호. 호. 호. 내 맘에 맞는 이.

큰말 타신 당신이  
 쌍무지개 홍예문 틀어세운 벌로  
 내달리시면

나는 산날땀이 잔디밭에 앉어  
 기(口畵)를 부르지요.

「앞으로-가. 요.」  
 「뒤로-가. 요.」

키는 후리후리. 어깨는 산고개 같어요.

호. 호. 호. 호. 내 맘에 맞는 이

### 정지용 시인

출생 : 1902년 충북 옥천 출생  
 사망 : 1950년 9월경(추정)  
 저서 : 정지용 시집, 백록담, 문학독본, 산문 등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비로북, 북큐브,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인천, 문화의 중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06
특집   광복 70년, 그리고 인천	10
그곳에 가고 싶다   인천 영화 촬영지	22
포커스   수도권 매립지	30
내 길 내 일   '고산자의 후예들' 김홍국 대표	34
까치밭로 본 인천   ㉔ 동암역 북광장 → 십정동	36
CULTURE INFO	40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44
NEWS BRIEF	46
COUNCIL NEWS	50
INFO BOX	54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야'	57
모닝 커피 한잔   황재순 전 부개고등학교 교장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8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등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김성환·김상덕 (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털프린팅

## CONTENTS 2015. 08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60



### COVER STORY

70년 전 인천에서 광복의 의미는 넘달랐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건설했다고 생각한 인천을 떠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시민들은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 환희의 노래를 불렀다. 지금 일제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광복의 의미는 늘 새롭게 다가온다. 어려움 속에서 자랑스런 도시 인천을 만들었다는 자긍심이 시민들 마음에 흐르며, 오늘날 인천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 인천시 인터넷신문 '1-View'(enews.incheon.go.kr)
-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 블로그(incheonblog.kr)
-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새터민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나요? 있다면 전화번호를 문의드립니다.

↳ 안타깝게도 현재 새터민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대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JST 일자리지원 본부의 대표번호와 1600-1982, 인천 새터민 지원센터 대표번호 032-765-6917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청 광장 분수의 운영시간을 알고 싶어요.

↳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절기, 광장 분수는 1일 7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시에 각 30분간, 음악 분수는 1일 5회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7시, 8시, 9시에 50분간 운영합니다. 참고로 시설 점검이나 청소 시, 우천 시에는 운영을 중지합니다.

송도국제도시를 관광하고 싶어요. 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서진으로 이동하는 배편을 알고 싶습니다.

↳ 송도국제도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송도국제도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453-7072~4)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코스를 비롯한 관련 안내는 경인 아라뱃길 종합안내센터 1899-36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석동 비치타운에서 중부수도사업소 가는 버스를 안내해주세요.

↳ 만석동 주민센터 앞에서 10번, 2번 버스를 탄 후 상수도사업본부(스마트타운) 정류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약 2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그건 이렇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 원천무효 선언 공동기자회견' 관련 해명(설명) 자료입니다.

### 기자회견 내용

- 기자회견 일자 : 2015년 7월 8일(수)
-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10년 연장 합의는 서울시, 환경부에서 주장한 30년 연장 영구 매립지 사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임.

### 해명(설명) 자료

1.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사용면적에 대해 합의했으며 '10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음.
- 3-1공구의 예상 사용기간은 현재의 매립 추세로 보아 **6.4년 사용가능함**
- 이 기간 중에 대체매립지를 조성 추진하기로 하였음.

※ 언론사에서 **6.4년과 2매립장 잔여 사용 가능 기간 2.5년을 감안하여 편의상 10년으로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30년 연장' '영구매립지 사용' 주장에 대하여
- 3-1공구 매립사용 기간 중에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단에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면 매립은 종료됨. 따라서 **30년 연장, 매립지 영구사용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인천시장 협상권한 일임에 대하여
- 매립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권은 인천시장의 행정권한임.
- 그럼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립적 인사와 언론사, 전문가, 연장 반대 주민대표를 포함한 시민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한 것임.**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정진화(37·슈즈 디자이너)

## <굿모닝인천> 보고, '인천 섬'의 매력에 퐁당~

친구들과 울어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굿모닝인천>의 섬 특집 기사를 보고 바로 인천 섬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외국어는 휴양지의 바다인가 착각했어요. 서해가, 지척에 있는 인천의 바다가 그리 맑고 아름다울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친구들도 제 의견에 만장일치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다 행복한 고민에도 잠시 빠졌어요. 섬마다 각자 매력이 넘쳐서, 어느 섬을 가야 할지 정하기 어려웠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다 가고 싶지만, 이번에는 <굿모닝인천>에서도 추천한 섬 중 무의도 하나가 해변으로 정했습니다. 해변도 넓고, 레포츠 천국이라고요.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집 와이어(Zip Wire)'도 탈 수 있다니 기대가 큼니다. 저는 안산에 사는데, 인천과는 수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주말이면 종종 인천으로 나들이가곤 합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을 통해 좋은 정보를 많이 전해주세요. 친구, 가족과 인천에 자주 놀러가게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 팔만대장경·훈맹정음·디지털문자의 도시 인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세운다

한글, 알파벳을 비롯해 세계인들의 말과 언어, 생각의 집합체인 문자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 최초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다. 인천에는 문자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고려 때 만든 팔만대장경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디지털 문자까지. 문자의 발전과 변천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고장이다. 첨단도시 송도와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문자와의 만남은 인천을 가장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 부지

## 언어·문자 역사가 빛나는 인쇄문화 발상지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립 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2020년 인천에 문을 열 예정이다. 국가수준의 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여주, 세종시와 경합을 통해 따낸 쾌거다.

인천은 인쇄문화의 빛나는 발상지이다. 책과 문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2인3각 관계로, 인천에는 문자와 관련된 유구한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그것이 인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유치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상정고금예문은 1234년(고종 21) 강화에서 간행됐다. 1445년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보다 211년 앞섰고,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경보다 143년이나 빠르다.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인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불력(佛

力)으로 막아내고자 16년(1236~1251)간 피란지의 수도였던 강화에서 제작됐다. 1962년 국보 32호, 1995년 장경판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2007년 장경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의 자랑거리다. 1782년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인 외규장각(外奎章閣)도 인쇄문화 역사의 큰 자산이다. 병인양요(1866)로 전각과 책이 소실되었고 조선의궤 등이 약탈되었지만, 2003년에 강화도 고려 궁지에 외규장각을 재건했다.

일찌감치 발달되었던 인쇄술로 최초의 도시 안내서 '인천사정(仁川事情)'도 발간됐다. 이 책은 1892년 일본인이 최초로 편찬한 인천 안내서로, 일본인의 시각에서 인천 여행자들에게 유용한 여관과 술집, 인천공원, 월미도, 소월미도, 강화도, 영종도, 정족산성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은 시각장애인들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



대한제국 관립인천외국어학교 졸업 기념



송암 박두성기념관 내부

음(訓音正音)이 창안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글 점자가 인천을 문자박물관 후보지로 선정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1926년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고안해 반포한 송암 박두성 선생은 1888년 강화군 교동면에서 출생했다. 1999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송암 박두성기념관을 개관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1989년 디지털 한글문자인 한글워드프로세서 '1.0'을 개발한 이찬진 씨 역시 인천 출신이다.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오피스96'을 시작으로 매년 기능이 향상된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출시해 이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한글 자모의 원리와 계임을 결합한 인디게임을 만들어 보급 하고있다.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도시**

인천 송도가 세계문자박물관의 최적지로 선정된 이유는 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입지조건 때문이다. 송도는 항공, 항만, 철도,

도로까지 연계되는 입체적 교통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강점 중 강점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 중인 컨벤시아, 외국학교, 호텔, 아트센터 등과 연계할 경우 어떠한 국제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수도권 거대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어 관람객 유치 등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도 가능하다. 또 선정된 부지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내 교양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설치 완료돼 당장이라도 건립이 가능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인천에는 특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언어가 공존했다. 고대부터 신라와 고구려어가 함께했고, 개항기에는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서구의 조계지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언어가 상용됐다. 1895년 대한제국 인천 감리서에 '인천외국어학교'가 설립됐고 성공회 내동

교회에 의료선교사였던 엘리자 랜디스는 '인천외국어학원'을 설립해 외국어 보급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금의 송도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다양한 언어가 구사되고 있다.

**국가수준 문화시설로 발전시켜 시민의 자부심으로**

인천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는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천의 문화적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인천이 세계 주요 문자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관리, 전시, 교육, 연구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는 세계문자박물관을 지역 박물관 수준이 아닌 국가수준의 문화시설로 발전시켜, 수준 높은 미래도시의 '화룡점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로 인천은 지역의 고용창출과 관광콘텐츠가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인천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과 국내의 관광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과정 뒷 얘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문화의 격을 높이기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진행에 직접 참여해 왔다. 유 시장은 지난 7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최종발표 PT에 직접 참석, 심사위원들에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유 시장은 심사위원들에게 박물관이 인천으로 유치될 경우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고 반포한 '송암 박두성 기념관'을 문자박물관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문자와 관련된 문화재를 조사, 발굴해 많은 유물을 기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들로부터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 시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지원 의사가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전에는 모두 9개 시·도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보다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문자와 관련된 풍부한 콘텐츠와 체계적인 준비로 월등한 경쟁력을 보였다. 1차 심사에서 5개 도시로 압축됐고, 2차 현장실사 후 인천, 세종, 여주 3개시가 최종 경합을 벌인 끝에 인천이 최종 선정됐다.



# 광복 70년, 빛 光 돌아올 復 인천 그날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네 나라에 그 공동선언을 수락하는 바를 통고시켰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히로히토 일왕의 ‘중전 선언’은 심한 라디오 잡음 속에 이 땅에 닿았다. 마치 외계인이 내는 목소리 같았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었다. 8·15 광복 당시 인천에 거주한 일본인은 2만38명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거주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던 인천에서 맞은 광복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어느 골목에서는 환희의 찬가가, 또 다른 골목에서는 곡(哭)소리와 탄식이 흘러나왔다. 광복을 맞은 지 올해로 70년, 일본 패망 때 인천의 모습과 그 흔적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 팔굉일우(八紘一宇), 인천부민을 전쟁에 동원하라

하와이 진주만 공습 후 전장이 확대되면서 조선총독부의 가장 큰 현안은 조선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일이었다. 중일전쟁 직후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일본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1940년 10월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새롭게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중앙과 지방 조직으로 구분되었고, 지방조직은 8도의 연맹부터 최하층 말단 조직인 애국반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맹세문을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무조건 외우게 하였다.

글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 # 후방 총력전의 선봉, 애국반(愛國班)

1940년 10월 29일 국민총력연맹의 인천지회인 국민총력인천연맹이 결성되어 이사장에 나가이 테라오(永井照雄) 인천부윤이 취임하였다. 미국과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던 1941년 10월 나가이 부윤은 대동아공영의 신체제를 건설하는 최전선에 인천부민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담화로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 26일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된 국민총력연맹 제2차 이사회에 인천육군조병장장 다이코 키자부로(大幸喜三郎)와 인천경방단(仁川警防團)의 부단장 무카이 사이이치(向井最一)가 인천대표로 참석하였다. 1942년 당시 국민총력인천연맹에 속해있던 마을단위의 정(町) 연맹은 모두 70여 개였고, 그 휘하에 10호 단위로 조직된 애국반 3천200여 개가 있었다.

애국반에서는 매일 1회씩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황국신민화를 위하여 신사참배와 애국반회 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전쟁의 확대와 함께 징병과 노역에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헌납, 공출을 독려하는 기사가 수록되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애국반’은 1943년 7월에 발행한 것으로 모두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면과 4면은 신문의 형식을 빌려 기사와 정보, 만평을 싣고 있는데 밀정을 조심하자는 내용과 함께 민적에 등록하여 징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2면과 3면은 ‘호적에 누락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계몽적 성격의 포스터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애국반」 1942년 7월호(인천시립박물관 소장)

※팔굉일우(八紘一宇) : ‘팔방이 하나의 지붕아래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팔방은 세계를, 하나의 지붕은 일왕을 가리킨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논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①황국신민의 서사(인천시립박물관 소장) ②포탄(러일전쟁 전리품) ③신흥초등학교 교정의 러시아 함대 포탄 ④포탄에 새겨진 명문(러시아함대 바리아크호 전리품)

한편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일제는 조선인들의 전쟁동원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 등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ノ誓詞)'라는 일종의 맹세문을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무조건 외우게 하였다. 아동용과 일반용 두 종류가 있는데 관공서와 학교에서는 조회시간에 이를 암송시켰으며, 개인기업과 대규모 상점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낭송을 강요했다고 한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된 '황국신민의 서사'는 국민정신총동원인천연맹과 인천부에서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일반용 자료로 일본어 내용의 좌측에 한글 독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한글 번역이 아닌 독음을 기록한 것은 맹세의 내용보다 암송이 더욱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러일전쟁의 기억을 활용하라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에 단순한 '승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대 사건으로 그로부터 일본인들은 대륙과 태평양을 향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황인종이 백인종을 격멸한 최초의 전쟁이라 칭하는 한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싸움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러·일전쟁의 첫 승전을 알렸던 인천은 일본인들에게 기념비적인 공간이었다. 당시 인천 앞 바다에 자폭하여 침몰한 러시아 전함의 잔해를 전리품으로 나누어 갖는다면, 인천 여행객에게 월미도를 러·일전쟁의 승전지라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러시아 군함이 침몰한 바다를 바라보며 역사를 회고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기억은 그로부터 약 38년 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용된다. 백인종 러시아를 이겨냈다는 경험을 국민에게 되새겨 미국과 벌



1940년대 경정현 감독) 유기공출기념사진(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이는 전쟁을 승리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속셈이었다. 그런 일제의 속셈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인천이었다. 1941년 4월 응봉산 정상 옛 세창양행 사택 건물에 자리했던 인천부립도서관(지금의 미추홀도서관)이 이전하자 인천부에서는 그 자리에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42년 6월 20일 인천향토관을 개관하였다. 인천향토관은 주민에게 기증받은 각종 고고유물과 인천의 기념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전함의 잔해인 전함기, 포탄, 총, 닻 등을 전시하였다. 일제는 이를 통해 인천부민은 물론 인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승전의 기억과 경험을 활용하여 태평양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당시 인천향토관에 전시되었던 러·일전쟁의 잔해들은 광복 후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에 그대로 인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승전의 기억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도 그대로 전

해졌다. 어린이는 앞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세계에 전파할 훌륭한 재목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사교육이야말로 당장의 전쟁수행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당시 인천부 화정(花町; 현 신흥동)에 위치했던 아사히공립국민학교(현 신흥초등학교)는 일본인 아동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졌던 학교다. 인천부에서는 인천향토관에 전시되었던 것과 똑같은 러일전쟁 당시의 포탄과 러시아 군함의 돛대를 이 학교 교정에 세워놓았다. 일본인 아동들이 전부였던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40년 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승전의 기억을 전달하면서 황국신민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1940년대 일본인 학생들에게 러·일전쟁의 기억을 되새기게 했던 그 포탄과 돛대는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 학교의 교정에 남아 있다.

## 패망 일본인들, 미군에게 일장기 팔아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이 항복 방송을 하였다.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대부분은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선언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왕이 직접 항복을 선언한 것이었다. 당시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것 같은 큰 충격에 빠졌다.

글 이성진 인천영화관광경영고 교사

지배자 일본인에서 패망자 일본인으로 전락하면서, 피 지배자였던 조선인들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어야만 했다. 특히 조선인들의 습격이나 위협 및 생명 재산상 안전에 대한 공포심은 더 심했다.

당황하기는 인천 거주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해방을 처음 맞이하는 일이고, 그 해방이 정말 온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일본이란 거대한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패망하였다는 소식이 어리둥절할 뿐이었고, 해방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을 뿐이었다.

우리가 화수동 동사무소 옆에서 살았거든, 사람들은 그냥 맥도 모르고 좋아서 그냥 다들 좋아했지. 팔월 십오 일 날, 극장에 가려고 시내에 나가니까 다른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 댕겼지만, 만세를 부르고 그런 일은 없었어(박상규 1922년 6월 30일생)

그렇게 갈망해 왔던 해방이 하늘에서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듯 그렇게 우리에게 떨어졌다. 조선인들은 드디어 해방이 왔다는 현실을 실제로 체득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을 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패망국민인 일본인에게는 그 광경 자체가 마치 미쳐 날뛰는 망나니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일본인들에게 산 일장기를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는 미군들

밤이 되면 조선인들이 횃불을 켜고 거리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난무(狂喜亂舞)하는 일은 17, 18일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일본인을 습격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문을 잠그고 전전긍긍하였다. (인천인양기, 所谷益次郎, 황해문화 2001. 봄호)

이러한 일본인들의 공포심은 조선인들이 시내 중심으로 나와 만세를 외치는 것조차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예단하였다. 그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조선인 시위대를 일본 헌병대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군 환영 인천시가지행진(1945.9.7)

귀국하는 일본인 행렬(출처·인천일보)

일본인 중에는 9월 초순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본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특히 2, 3일 내 미군이 인천항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면서 다급해진 일본인들은 가재도구를 비롯한 소유재산을 조선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까지도 조선인에게 전부 팔았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해서 돌아가지만 되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던 일본인 상점주들은, 상점을 비롯해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몽땅 조선인 점원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조선인 점원 중에는 일본인 상점주가 준 상점과 부동산으로 하루아침 벼락부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

드디어 9월 8일 기다리던 승전국 미군이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미군은 패망국민인 일본인에 대해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너그럽게 대하였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최대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돈으로 바꾸어 일본으로 돌아가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인천에 주둔하는 미군을 상대로 일본인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일장기까지 전리품으로 판매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항도 인천에는 때마침 일인 만물상이 제멋대로 속출하고 있다. 갖은 비열한 수단을 다 써서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던 그네들은 이와 같이 쫓겨가는 바에는 한 푼이라도 많이 가져가려고 그 본성인 야욕을 발휘하여 인형, 불상, 공서(弓矢), 화병, 사미생 기타 각종 기묘묘한 골동품, 가재도구 등등을 각기 현관방에다 진열하여 두고 미군인 손님 오시기를 기다려 접대에는 농(濃)화장을 한 젊은 머리 또는 딸들이 애교를 떨며 미군이 물가사정을 모르는 것을 기회로 하여 엄청난 고가로 팔고 있다. 그들의 개점은 전상공회의소 회두 모씨의 저택을 위시하여 뒷골목 거주 일인까지 가지각색의 진품을 진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스로운 동시에 한심한 것은 일본 국기를 진열하고 미군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그것은 미 군인이 전승기념으로 일본국기를 잘 사는 탓인데 아무리 계양을 금지 받는 패망 국가라 할지라도 소위 그네들의 국민정신을 입힌시켰다고 뒤 떠들던 것이고 보니 무심할 수 없다. 그런데 묘한 것은 미군들은 소위 전승품이라고 하여 새 국기는 안 사고 낡은 것만 사 간다는 것이다. (조선인민보, 1945.9.23.)

일본인들이 귀국하고자 할 때 소지 한도를 현금 1천원과 소량의 짐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형 선박을 마련해 소유 재산을 다 싣고 야반도주하다가 인천부두국 감시과원에게 적발되어 출항을 금지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를 철저히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은 그렇게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 행정자료 불태우고 소월미도 등대 폭파

‘조선의 소일본(小日本) 진센(Jinsen)’ 일본인들은 인천이란 도시를 자신들이 건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대를 이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했던 집과 토지를 남겨두고, 게다가 선조의 무덤까지 버려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천의 일본인들의 안타까운 심경이 <인천인양지(仁川引揚誌)>라는 책에 담겨 있다.

글 이희환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원

잘 있거라 인천아 이별 후에도 벚꽃은 무사히 피어나렴  
 떠나면 고향에서 쓸쓸한 밤에는 꿈에도 울리겠지 월미도야  
 기차는 떠나가고 항구는 희미한데 이제 이별의 눈물로 외치나니  
 뜨거운 인사를 받아줘요 그대여 고마웠어요 부디 안녕!



인천인양지

위 노랫말은 1951년에 결성된 ‘후쿠오카 인천회에서 출간한 <인천인양지(仁川引揚誌)>란 책에 수록된 것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점령했던 서태평양 멜라네시아의 항구 도시 라바울을 떠나면서 불렀던 일본군가에 인천을 떠나는 일본인들의 심사를 가사로 담아 부른 노래다.

이 노래는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60년 이상 인천에 살았던 일본인들 약 100명이 1946년 3월 2일 인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월미도를 굽어보며 마지막 집단 철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열창했다고 한다. “조선의 소일본(小日本) 진센(Jinsen)”(일본인들은 인천이란 도시를 자신들이 건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에서 대를 이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했던 집과 토지를 남겨두고, 게다가 선조의 무덤까지 버려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천의 일본인들의 안타까운 심경이 담겨 있다.

이 노랫말이 수록된 <인천인양지>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을 알리는 방송을 통해 패전이

확인된 직후, 일본제국주의 국민으로 인천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던 인천의 일본인들이 황급히 가산을 정리해, 그들의 모국 일본으로 철수,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인양(引揚)’이란 한자어 뜻 그대로 하자면, ‘물체나 시체 따위를 위로 끌어서 옮긴다’는 의미인데,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이 본토 귀환과 철수과정을 ‘인양’이란 용어로 표현했다.

인천 이민 2세로 인천 개항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간된 <인천부사(仁川府史)>를 편집했던 고타니 마사지로(小谷 益次郎)가 쓴 <인천인양지>의 서두에 나와 있지만, 이 책은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가 일본인들의 <조선철수사> 연구를 기획해 고타니에게 인천에서 철수한 과정에 대해 집필을 권유해 출간하게 되었다. 모리타는 <인천인양사>를 포함해 모두 네 권의 <조선종전의 기록>이라는 책자를 남겼는데, <인천인양사>는 자료편 제2권 ‘남조선지역의 철수에 경성, 부산, 목포 등 일



소월미도 등대(인천인양지)

본인들이 몰려 살았던 주요도시와 함께 인천에서 철수한 과정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겨 있다.

“소화 20년 8월 15일의 중대한 방송으로 일본인들은 느닷없이 죽음의 골짜기로 추락하였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 눈앞의 문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지위가 뒤바뀐 것으로 오로지 조선인들의 습격이나 박해 및 생명 재산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만 존재하였다.”(이하 인용은 윤혜연 역, <조선철수지> 상·하, <황해문화> 2001년 봄·여름호)라고 시작하는 <인천인양지>의 전편을 읽다 보면, 패전 당시 2만 명을 넘겼던 인천의 일본인들이 뜻밖의 패전을 맞아 어떤 정치적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공포에서 벗어나 치밀하게 철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광복을 맞은 인천의 한국인들이 햇불을 켜고 거리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했던 것을 고타니는 ‘광희난무(狂喜亂舞)’했다고 표현했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인천의 한국인들이 그동안 억눌렀던 심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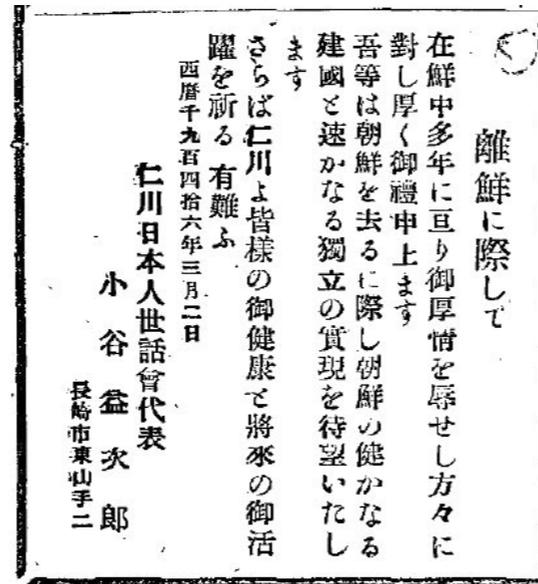
로 자신들을 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습격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전전공공했던 일본인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돈을 우체국에 예금하든지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또 인천부를 장악했던 일본관리들은 이케다(池田清成) 인천부윤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미군의 상륙 이전에 대비한 퇴각 준비로 관청 서류를 대대적으로 소각했는데, 그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고 한다. 8월 17일 오후 4시에는 이케다 부윤 등이 참여한 가운데 1890년 건립된 이후 인천 일본인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인천신사(仁川神社)의 신체(神體)를 신전에서 꺼내 한국인들 몰래 배를 이용해 ‘○○지점’에 숨겼다.

패전한 일본인들이 전국적으로 상조회 및 알선기관 성격의 세화회(世話會)를 조직하기로 하고, 인천에서 세화회 결성을 위해 첫 모임이 이루어진 것은 8월 21일이었다. 고

타니의 제안으로 인천시사 사무소에 밤 10시에 모였던 이들은 이후 두 차례의 준비위원회 모임을 거쳐 8월 26일 인천세화회를 결성했다. 그런데 인천세화회는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애초에 주창자로서 필자의 구상은 미래의 겨류민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인회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철수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남아서 머무르게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고타니가 기록했듯이, 인천세화회는 “우리에게는 전진과 재건설만 있을 뿐 후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했다. 고타니 마사지로는 <인천인양지>에 기록하지 않고 은폐했지만, 인천 일본인들이 저지른 악행 중에는 역시 곧 있을 미군의 상륙을 방해할 목적으로 1903년 한국 최초로 건설된 소월미도 등대를 8월 27일 폭파한 사건이다. 미군 선발대가 8월 25일 이미 인천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월미도 등대를 어떤 연유로 폭파했는지, 밝혀야 할 과제다. 9월 8일로 예정된 미군의 인천상륙은 인천 일본인들에겐 또 다른 공포였다. 일본인들은 특히 부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매우 우려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점령군으로 상륙한 미군은 인천의 치안을 일본경찰에 맡겼다. 당일 외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상륙을 환영하기 위해 부두로 나왔던 인천의 자치단체인 보안대의 지도자 권평근과 이석우가 일본경찰대가 쏜 총에 희생된 것도 이때다.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성명 발표 이후 불안에 떨었던 인천의 일본인들은 8월 23일 미군의 항해금지령과 10월 15일 이케다 부윤의 파면과 한국인 임홍재(任鴻宰) 시장의 부임 이후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일본인 세화회의 치밀한 준비와 미군의 안정적인 철수, 귀환 배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끝까지 남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인천의 일본인 2만여 명과 북한 땅에서 인천으로 내려온 일본인 기만명을 선편과 기차편으로 모두 일본으로 구출한 후, 인천일본인세화회 100명이 마지막으로 1946년 3월 2일 인천역을 떠나 인천을 탈출하면서 인양의 대장정을 마쳤다. 1883년 이래 한국인에게 끼쳤던 온갖 악행과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없이, 월미도의 벚꽃을 그리며 <잘 있거라 인천아>를 부르며 떠났다.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인천 개항장 일대를 찾아와 70년 전 인천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일본인 고별 인사(대중일보 1946.3.3 2면 광고)

##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의 소녀들

지영례 할머니를 만난 날은 6월 중순인데도 무척 더웠다. 할머니는 인터뷰 장소인 배다리 한 건물의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꽤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70년이 지났다. 일본육군조병창을 그만둔 후 일흔 번 새해를 겪었다. 이제는 기억도 사라졌고 그날의 일들이 꿈결처럼 멀어질 때다. 땀이 식을 때쯤 지 할머니는 그동안 잊고 지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천천히 꼬집어내 들려주었다.

글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원



일본육군조병창 내 병원 서무과 직원들(지영례 할머니 소장 사진)

지영례(82) 할머니가 ‘충주 지 씨’ 집안에 태어난 건 1928년이었다. 세상에 눈을 떠 보니 남의 나라 땅이었다. 조선의 흙과 조선 사람들은 그대였지만 이미 ‘식민’이 일상이 된 나라였다. 지 할머니는 소화동초등학교(현 부평동초등학교)를 다녔다. 여기서 일본어를 배웠다. 조선말을 하는 게 오히려 서툰던 시절이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조회를 했다. 비가 오면 교실에서 했다.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구호를 외치고 궁성요배를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곳은 소화고등여학교(현 박문여고)였다. 시험을 봐서 입학했다. 부평역 너머 산 밑에 있던 2층짜리 학교였다. 지 할머니의 집은 ‘피꽃마을’에 있었다. 원적산 근처 산곡동에 있던 동네다. 여기서 태어났고 결혼할 때까지 살던 고향이다. 학교까지는 십리 길이었다. 꼬박 한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다.

“그때는 시골이니까 논길 밭길로 다녀요. 가는 길에 큰 내가 있는데 장마가 지면 문제였어요. 한번은 친구들 셋이서 같이 학교를 가는데 다니던 길이나 여기로 가면 길일 거라고 짐작해서 어깨동무하고 갔더니 발이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떠나려가요. 셋이 꼭 붙들고 울고불고 악을 쓰는데 남자 어른이 눈에 나왔다가 건져줘서 살았어요. 비만 오면 아주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학교를 끝까지 마칠 수는 없었다. 한창 ‘정신대’를 뽑는다고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직업을 갖고 있어야 했다.

“정신대를 보낸다고 날마다 와서 이름을 적어갔어요. 직장에 다니면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은 집에 있으면 다 정신대 끌려



지영례 할머니

간다고 했어요. 동네 반장이 찾아와서 이름, 나이, 생년월일을 적어 가면서 돈벌이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오라버니 친구가 조병창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반장으로 있었는데 우연히 손을 다쳐서 의무과에 갔더니 거기에도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조병창 안에 있던 병원이죠. 그래서 그분이 서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여자들을 뽑는다고 해서 그 양반이 얘기해줘서 나를 서무과에 넣어줬어요. 들어갈 때 시험이나 면접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땐 다들 아는 사람 통해서 알음알음으로 들어갔어요.”

열다섯 살 때였다. 소화고등여학교 2학년일 중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신대에 가지 않으려면 학교를 자퇴하고 취직을 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20~30명의 한 반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자퇴를 했다. 지 할머니가 나올 때도 같은 반에서 동기생 열 명이 함께 학업을 포기했다. 그렇게 나와 조병창에 취직한 아이들은 대개 ‘생방(旋盤)’ 공장으로 들어갔다. 거기 가면 기름 묻히고 힘들다고 알려진 곳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당시 소화고등여학교에는 일본 아이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퇴를 한 건 조선 아이들뿐이었다. 일본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지 할머니는 지인 덕에 다행히 편한 자리를 얻어 조병창에서 일을 시작했다.

“병원 서무과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 대신 일을 한 거죠. 조병창 안에서 환자를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서무과에 책상 하나 갖다놓고 다친 사람들이 찾아오면 ‘외과 갈 사람은 외과, 내과 갈 사람은 내과’ 도장을 찍어서 이름 쓰고 진찰권 끊어주는 일을 했어요. 공장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한번은 어떤 아이가 옷이 기계에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팔이 하나가 떨어져서, 팔 하나 따로 가져 오고 좀 있다가 아이를



일본육군조병창 내 병원 서무과 직원들(지영례 할머니 소장 사진)

따로 데려 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많았어요.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치료하던 병원이었어요.”

병원은 2층 건물이었다. 흔히 의무과라고 불렀다. 정문 근처 개천 옆에 건물이 있었다. 외과, 내과, 치과, 인과 등 과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의사는 일본 사람이었다. 지 할머니가 있던 서무과는 20여 명 정도가 근무했다. 처음 입사를 하고서 환자를 다루는 법 등 업무 내용에 대해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았다. 이어 신입 시절에는 조병창 밖으로 나가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맡았다. 두 명 또는 세 명씩 짝을 지어 조병창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대면 조사를 했다.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어떤 병이 들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기록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대로 진행하던 일이었다.

조병창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했다. 조병창 정문은 부평역 방향에 있었지만 ‘하쿠마초(白馬町)’ 쪽에 있던 뒷문을 통해 드나들었다. 공장 주위는 벽들로 담을 쌓아 놓았고 출입구마다 경비가 서 있었다.

“문마다 한국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따로 뽑았나 봐요. 교대로 경비를 서더라고요. 작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문을 통과할 때 검문을 하거나 몸수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갖고 나올 게 있어야죠. 일본 사람들은 문에는 없었고 안에서 돌아다녔어요. 긴 칼 차고 긴 구두 신고 철걱철걱 거리면서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뒷문에서 병원까지는 지그재그로 걸어서 가야 했어요. 공장들도 많았지만 창고도 많았어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쌓다 두던 곳이죠. 안에 기차가 다녀서 가끔 물건들을 싣고 가기도 했어요.”

조병창에 들어갈 땐 근무복을 입어야 했다. 집에서부터 입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공장 안에 비치해 둔 것들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 개인 돈으로 구입하는 방식이었다. 점심 식사는 병원에 붙어 있는 식당에서 했다. 식대는 월급에서 제하고 나왔다. 서무를 보는 사람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 3년 정도 근무하던 중 광복이 되었다. 아주 큰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 됐을 뿐이다.

“일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무슨 말인가를 수군수군하더라고요. 공장에서 기계도 돌리지 않고 그 전하고 일하는 게 달랐는데 광복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쫓겨 들어간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병원도 할 일이 없었죠. 서무과에 반장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도 그만두어야 하겠다고 해서 출근을 안 했어요. 그때 학교에 있던 일본 선생님들도 다 쫓겨 들어갔어요. 해방되고 사람들이 일본인들 사는 집 찾아가서 밤새도록 대문 두드리고 난리를 쳐서 일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다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 할머니의 식민지는 그렇게 끝났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군거림 속에서 광복은 그렇게 찾아왔다.



담 하나 사이, 현실이 아닌 듯 펼쳐진 제물포시장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천 이야기

길을 걷다 보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선가 이미 스쳤던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인천이 그렇다. 섬과 바다, 공항과 항구, 높다란 빌딩숲과 나지막한 옛 동네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색다른 매력으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낮은 지붕에 떨어지는 햇살, 골목길에 나부끼는 바람조차 앵글에 담으면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지는 도시. 뷰파인더 너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천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길을 나선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영상위원회, CJ E&M 제공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S#1 제물포시장

#### 눈물 웃음 모두 담긴, 텅 빈 시장

홍행에 성공한 누아르 영화 <신세계>도 로케이션지로 인천을 선택했다. 영화는 거대한 범죄 조직에 얽힌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를 이야기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진실을 파헤친다. 경찰에서 조직의 3인자로 성장한 주인공 이정재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너머를 무덤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면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주인공이 그의 조직과 접선하며 혼돈에 빠지는 장면은 인천 제물포시장에서 촬영했다.

현실이 아닌 듯했다.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주택가와 담 하나 사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거대한 광장을 둘러싼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1972년 문을 연 제물포시장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활기가 넘쳤다. 수봉산 자락에 주택가와 학교가 몰려 있어 늘 사람들로 들끓었다. 이 일대가 그렇듯 메인에서 번두리가 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시간도 멈추었다.

지금은 터만 텅그러니 남은 이곳이, 세상의 관심을 받은 건 2011년 작 <써니>를 촬영하면서부터다. 남구가 주 배경이었던 이 영화에서 여고생 써니파와 소녀시대파가 여기서 ‘욕 배틀’을 하며 관객에게 웃음을 안겼다.

도로변에서 맥주 가게를 하는 문화진(47) 씨가 그 사정을



잘 알았다.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많이들 찾아와요. <써니>에 나온 후로 <신세계>, 드라마 <황금의 제국>,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9>의 오프닝도 여기서 찍었어요. 이달에는 영화 <아수라>를 찍으러 배우 정우성도 와요.” 쓰러져 가는 폐허에서 펼쳐진 화려한 춤의 향연은 묘하게 잘 어울렸다. 그들이 왔다 간 흔적은 시장 한쪽 벽면에 현란한 그래피티로 남았다.

서터를 굳게 내린 가게들 사이로 유일하게 문을 연 방앗간이 보인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지만, 할 말이 뭐 있겠냐며 말끝을 흐리신다. 그도 그럴 것이 제물포시장은 1997년 이미 재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담보 상태다. 이웃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할아버지는 긴 세월 홀로 텅 빈 시장 한편을 지켜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20여 년이 흘렀다. 허물어진 공간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안도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  
 위치 : 인천 남구 송의동 27-50(경인로 142번길)  
 가는 길 : 수봉공원과 제물포역 사이에 있다.  
 촬영 작품 : 영화 <신세계>, <써니>, 드라마 <황금의 제국>,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 등



신세계(2012)

써니(2011)

댄싱 9

## S#2 십정동 열우물벽화마을

### 바보로 살아도 행복한, 동구네 동네

“공화국에서는 혁명전사, 이곳에서는 간첩. 난 최정에 스파이인데, 내 남 파 임무는 달동네 바보 백수.”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더벅머리 총각 ‘동구’가 쌀부대를 이고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만 같다. 부평구 십정동. 이 동네에서 배우 김수현이 주연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촬영했다.

똑똑. “이 동네 어디에서 영화를 촬영했나요.” 동네 슈퍼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어르신 한 분이 고맙게도 앉아서 주신다. 동네 자율방범대 대장님으로 통하는 권병이 할머니다. “골목골목 영화고 드라마고 안 찍은 데가 없어. <나쁜 녀석들>, <가면>, <악의 연대기> 그리고 그 뭐더라 추리닝 입고 막 뛰어다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요. 동네 나온 영화들은 보셨어요?” “보긴 될 봐.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배우들도 그 ‘놈’이 그 ‘놈’ 같고”. 말씀은 그리 하셔도 할머니는 동네에서 찍은 영화와 그 장면 장면을 줄줄이 꿰고 있다. 또 고생한 배우와 스태프에게 당신이 손수 지은 뜨끈한 밥도 먹었다고 흐뭇해하며 살며시 미소 짓는다.

마을 안으로,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동네는 언덕을 따라 좁다란 골목과 계단이 이어져 있고 그 옆으로 나지막한 집들이 서로를 기대어 있다. 발길 닿는 대로 스크린에서 보던 낮익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간다. 열우물로 102번길. 동구가 먹고 자고 머무르던 석이 슈퍼는 사라지고, 대신 작은 텃밭이 들어섰다. 아쉬운 마음으로 길을 오르는데, 초록색 운동복



손님들의 방문이 궁금해 집 밖을 내다보는 할머니와 지나가던 옆동네 아이들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을 입은 동구가 언덕배기 집 담벼락에 숨어 있다 깜짝 인사를 건넨다. 동구뿐 아니다. 꽃, 나비, 무지개... 스러져가는 담벼락에도 황량한 콘크리트 계단에도, 소박한 풍경이 그림으로 곱게 새겨져있다. ‘열우물길 프로젝트’가 불러일으킨 변화다. 2002년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움직임은, 오래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사진 찍으러 왔어? 볼 것도 없는 동네. 허구한 날, 뭘 그렇게 오는 거야”. 권 할머니네 집 앞, 나무 아래서 나물을 다듬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동네 어르신이 하나둘 모여든다. 말씀은 그리 하셔도 시원한 물 한잔 건네며, 외지에서 온 손님을 따듯하게 맞아 주신다. 그 고마운 마음에, 한여름 골목길을 누비며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말끔히 씻겨 나간다.

1960년대 말, 동구 만석동과 주안, 멀리 서울에서부터 오갈 데 없던 사람들이 밀려와 터를 이룬 산동네. 개발의 거센 바람을 피해 나지막이 엮여 있는 이 동네에선, 도로 건너편의 고층 아파트가 유독 높고 낮설어 보인다. 하지만 도심에선 ‘은밀하게’ 숨어있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이 동네에선 아직 ‘위대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되돌아갈 곳 잃은 간첩 동구도 이 마을에서 동네 바보로 살며 그토록 행복해했을 것이다.

위치 : 인천 부평구 상정로 50 일대(십정동 열우물길벽화마을)

가는 길 : 지하철 백운역 2번 출구에서 상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700m 거리.

여행 메모 : 열우물로 102번길. 영화 속 ‘석이 슈퍼’는 사라지고 대신 작은 텃밭이 들어섰다. 하지만 그 앞에 드라마 <가면>의 촬영 세트장 ‘희망 분식’이 생겨났다.

촬영 작품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악의 연대기>, 드라마 <가면>, <나쁜 녀석들> 등



▲ ‘석이슈퍼’가 있던 자리



## S#3 송월시장

### 멈춘 시간 속의 사람들

만석동 방향, 기찻길 옆 송월동을 잊고 살았다. 그 동네 이름을 들으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동화마을이 먼저 떠오르고 발걸음도 그곳으로만 향했다.

잊힌 시간만큼, 이곳의 시곗바늘은 멈추어 있다. 황량한 도로 한가운데, 스산한 기운을 잔뜩 안고 서 있는 육중한 건물이 몸체를 드러낸다. 송월시장이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숨바꼭질>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가, 실종된 형이 살던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감독은 단지 그 공기나 분위기로 반영되는 ‘도시 괴담’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송월시장 건물에 낡은 아파트를 합성해 주상복합으로 재탄생시켰다.

1937년 역사를 시작한 송월시장은 가축을 사고팔아 흔히 ‘돼지 장터’라고 불렸다. 번성했으나, 만석동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생기고 철로 변에 담이 높이 쳐지면서 급격히 쇠락했다. 텅 빈 상가가 다닥다닥 붙은 비좁은 골목, 고개를 들면 파란 하늘 대신 지붕



주민들에게 아직 삶의 영역인, 송월시장

천막과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시야를 메운다. 찢어진 천막 사이로 하늘의 빛이 간신히 비어져 나온다. 이곳은 있는 그대로, 세트장이다. 영화 제작자들은 이 황량하고 적막한 풍경을 놓치지 않고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에 녹여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올가을에 고추만 빵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 평생 여기서 장사하고 살았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시장 초입에서 만난 방앗간 할머니는 한자리에서 44년 장사를 했다. 평해 상회의 김필이(82) 할머니는 낯선 방문객을 멀리서 손주가 찾아온 양 반긴다. 여기서 장사하면서 낳은 딸이 65세가 되었다며, 이곳이 내 있을 자리라고 눈시울을 붉히신다. 차마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 시장 안 가게는 대부분 텅 비어 있다. 도로변에 있는 슈퍼는 그나마 장사가 좀 된다. 음료수를 사면서 주인 아주머니

에게 슬그머니 말을 건넨다. “이 동네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다면서요?” “그럼~, 손현주가 나온 <숨바꼭질> 찍고, <변호사>에 나오는 돼지국밥집도 바로 여기잖아. 난 배우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내 안쓰러워서 커피도 타다 주고 그랬어.” 어두컴컴한 시장 골목 한구석에는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는 글씨가 아프게 박혀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시장 안에는 삶이 고단해도 따뜻한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머물고 있기에.

-----  
**위치** :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14-1(참외전로 13번길)  
**가는 길** : 인천역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  
**여행 메모** : 송월시장은 재난위험시설(D급)로, 돌러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 작품** : 영화 <숨바꼭질>, <변호사>, 싸이의 뮤직비디오 <행오버>



싸이 뮤직비디오 '행 오버'

숨바꼭질(2013)

## S#4 송월동 은하수 사진관

### 미가 가족이 머무르던, 할아버지네 사진관

올해 개봉한 영화 <차이나타운>도 송월시장 근처에서 찍었다.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진 ‘일영’이는, 차이나타운을 지배하는 엄마에게 ‘쓸모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이 머무는 곳으로 나오는 미가 사진관은 송월시장 앞 은하수 사진관에서 촬영했다. 사진관은 서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오늘 쉬시는 날인 거예요?” “취긴, 이 나이에 사진을 어떻게 찍어. 사진 그만둔 지 한 5년 됐나.” “간판이 새거라 영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영화 찍을 때 간판이 망가졌다면서, 새로 해주더라고.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그냥 달고 있어.”

조성희(78) 할아버지는 한자리에서 40여 년 사진을 찍었다. 한창때 뷰파인더를 바라보던 눈빛은 침침해졌지만, 당신 머릿속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지금이야 골목이 돼버렸지만, 한 30여 년 전까지 만해도 대단했지. 철길 바로 건너 대성목재, 동양방직이 있어서 사람들도 많았어. 교회나 성당 단체사진부터 가족사진까지, 이 동네 주민들은 죄다 찍은 것 같아.”

전성기는 끝이 났다. 철로 변에 높은 담이 쳐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필름 사진을 현상하지 않으면서, 할아버지네 사진관은 세상에서 잊혀 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그 멈추어진 시간을 찾아, 다시 발걸음이 오간다.

“MBC, SBS,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하더라고. 지난번에도 무슨 영화를 찍었어.” “김혜수가 나온 <차이나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야? 난 누군지도 몰라. 그냥 뭐 찍 나보다 했지.” 비 오는 날 차 안에 있던 일영이 사진관에서 나오는 엄마를 보고,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을 이 앞에서 촬영했다. 세상은 궁금해하는데, 굴곡진 삶이 어린 자신의 집을



영화 제작자들이 걸어 준 '새' 간판이 낯설다

내어준 할아버지는 정작 관심이 없다. 그리곤 낯선 방문객의 관심도 이내 다른 곳으로 돌려 버린다.

“이리 와봐. 내 박물관 보여줄게.” “아이고 야. 세상에, 보물들이네요.” 사진관 한편 캐비닛의 자물쇠를 열자, 나무로 만든 뷰카메라와 삼각대, 아이에게 돌 촬영할 때 입히던 드레스 등이 쏟아져 나온다. 사진관 문을 닫으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놓았던 것들이다. 할아버지가 자욱이 쌓인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카메라를 손에 드신다.

“뷰 카메라 마지막 세대에 나온 거야. 일제야. 아주 비쌌지. 예술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야.” 편안히 미소 짓는 주름진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문 닫은 사진관이, 영화의 잔상보다 더 긴 여운으로 마음에 남아 머무른다.

여행 메모 : 그 옆 중화요리집 미광도 영화에 자주 등장했다. 비 오는 날이면 영화 속 미가네 식구들을 만날 것만 같다.

가는 길 : 송월시장 건물 정면 오른쪽에, 바로 있다.

촬영 작품 : 영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2015)



나지막한 집들 사이 성채처럼 솟은 전도관



## S#5 전도관, 우각로문화마을

### 영화 속 환상과 삶, 그 사이

송의동 109번지 언덕에는 전도관이 우뚝 솟아 있다. 전도관은 한 종교단체의 예배 시설로 오랜 세월 사용하다 지금은 자물쇠가 채워져 봉인되었다. 대낮이지만 전도관은 철문을 굳게 닫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관리인이라는 마을 주민 연태성(55) 씨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레 금지된 영역에 발을 디딘다. 나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순간, 눈앞에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진다. 방영을 앞둔 김태희 주연의 드라마 <용팔이> 세트장이다. 색색의 조명 아래 펼쳐진 무대, 전당포 같은 분위기의 철조망 그리고 바. 예사롭지 않다 싶더니, 불법 도박장을 꾸며놓은 것이라고 한다.

연 씨 아저씨가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드라마 세트장이 나온다고 했다.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낡은 계단을 오른다. 한가운데 붉게 새겨진 십자가가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다. 뱀파이어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블러드>의 세트장이 아직 남아있다. 교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그 옛날이 오버랩되어 묘한 기분에 젖는다.

전도관에서 나와 마을의 풍경을 품으며 걸어 들어간다. 전도관 아랫동네라고 하던 송의동 109번지는 거칠고 험한 동네였다.



블러드 (2015)

그대를 사랑합니다(2010)

도심에서 산으로 떠밀려 온 사람들이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집을 짓고 붙어살았다. 불과 3년 전, ‘우각로문화마을’이라는 문패를 달기 전까지만 해도 소외된 이들의 공간이었다. 그러다 예술가들이 비어 있던 집에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산된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이 이곳 주민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정작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걱정하고 관심을 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바꾸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관과 작은 다리로 이어진 연 씨 아저씨네 집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송의동 109번지에서 촬영했다. 김만석 할아버지와 송이쁜 할머니는 이 언덕에서 처음 만나 노년의 깊이 있는 사랑을 시작한다. 영화를 개봉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 언덕을 오르며 영화와 겹치는 마음 따스한 풍광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송의동 109번지 우각로문화마을은 영화 세트장이자 환상의 세상이 되었다. 낡은 담장 안에 숨어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삶도 영화 속 그네들의 마을처럼 좀 더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란다.

위치 : 인천 남구 송의동 109(수봉로 21길)

가는 길 : 도원역 뒤편

여행 메모 : 전도관은 개인 소유이므로, 들어가려면 문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촬영 작품 : 영화 <신의 한수> <맨홀> <은밀하게 위대하게> 드라마 <오만과 편견> <블러드>

# 수도권매립지, 인천시가 바로잡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2016년 사용종료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현행제도 유지를 고수해 왔다. 우리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으로 전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우리시의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호에 이어 그동안 불합리했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우리시가 어떻게 개선했으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다.



## 수도권매립지 최종 합의로 무엇이 달라졌나?

1.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2.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3.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확립했다.

## 바로잡은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무엇인가?

1.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전
3.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한 금액 및 매립지로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전입된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자원에 사용)
4.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교통 확충 등 지원

※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에서 지난 6월 28일 최종 합의된 주요 내용임

### 수도권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 사항

- 인천시의 입장 반영한 최소면적(3-1공구) 최소 기간(현 반입량 기준 6.4년 예상) 사용
-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

## 수도권매립지 상황은 어떠했나?

수도권매립지는 20여 년 동안 수도권지역 2천500만 인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하루 817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수도권매립지 인근 도로를 통과하고 9천214톤의 폐기물이 매일 매립되어 환경오염과 개발제한 등으로 인근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다.

## 불합리한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20년간 지속된 이유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면허관청(인·허가)의 권한만 있었을 뿐, 매립면허권에 대한 지분이 없어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지역실정과 무관하게 운영되었고, 법적으로 지원되는 영향권지역 외의 주변지역은 환경피해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 인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

- 2014년 12월 3일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 입장 발표
  -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정책을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으로 전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인식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제시
- 선제적 조치를 위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단체장과 환경부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와 인천시민협의회 구성·의견 수렴
- ※ 인천시민협의회(시청 및 시의회, 서구청 및 서구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으로 구성)는 최소 면적 사용과 최소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인천시장에게 협상에 대한 권한 일임



## 수도권매립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
  -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50% 가산 연간 500억 예상(2016년 1월 시행)
  -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부지매각대금 1천438억원 연차적 투자(2015년부터 시행 중)
- 매립지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캠핑장 등 체육시설과 야생화 단지 상시 개방 등 주민 친화적 매립지 운영
- 수도권매립지의 새로운 이미지(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 창출,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 생산유발효과는 2조 775억원, 고용 및 임금유발효과는 각각 1만 9천571명 및 4천391억원으로 추산
- 환경산업실증화 단지과 연계한 High Tech 환경기업 유치
  - 환경부에서 조성중인 환경산업실증화단지 내 첨단 환경 기업 유치(2017년 5월 준공예정)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추진
- GCF 권장 사업모델로 개도국에 운영·기술 노하우 전파



## 매립시설 재활용 성공 사례



**영국 리벨리**  
 ◦ 올림픽 경기장 개발  
 ◦ 친환경 도시로 전환



**한국 서울 상암**  
 ◦ 상암미디어시티 개발  
 ◦ 월드컵 경기장, 공원으로 이미지 전환



**일본 오타이바**  
 ◦ 도쿄도 제13호 매립지  
 ◦ 도시재생 및 개발을 통한 이미지 전환

# Q&A

## 로 알아보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 Q.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이행을 전제로 제3, 4매립장 잔여 부지 중 최소면적 103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Q.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면적 15%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영구매립의 근거가 아닌가요?

A. 인천시는 최소면적(3-1공구 103만㎡) 사용에 합의했고, 30년 장기 사용할 수 없다고 4자 협의체에서 강력히 주장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최소면적 사용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다만 잔여면적 15%인 106만㎡의 추가 사용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일 뿐이며, 제3·4 매립장 부지면적 696만㎡의 일부로 결코 매립지 영구사용은 아닙니다.

### Q. 수도권매립지 연장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A. 수도권매립지 최종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 4조 4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① 환경개선개발기금 : 연평균 500억원(가산금 50%)
- ② 매립면허지분 및 소유권 : 1조 8천억원
- ③ SL공사 자산 : 8천180억원
- ④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조 8천450억원

이 외에도 교통망 확충과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Q.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에 종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인천시는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로,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관청 권한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자체처리시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한다면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장의 매립면허기간 연장 불가 처분시 재량권 남용으로 매립면허지분 소유자인 환경부와 서울시의 행정 쟁송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에 따른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 없이 매립지 권한과 실익이 상실되고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 고산자<sup>古山子</sup>의 지도 들고, 섬 산에 오르고 싶어라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피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고산자(古山子)의 후예가 오늘 이 시대에 지도를 만들고 있다. 지도 제작 전문가이자 산악인인 김홍국(65) 선생은 남동구 간석동에서 지도 제작업체 '고산자의 후예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29세손이다.

2006년 남편 고(故) 이재곤 선생과 함께 한반도의 산줄기를 샅샅이 훑어 완성한 '백두대간 24'는 대한민국 지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아내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설악산 진부령까지 한반도 산맥의 속살을 훑고 남편은 790킬로미터에 이르는 산길을 지도 24장으로 그려, 부부가 함께 지도를 완성했다. 김 선생은 자기 몸에 흐르는 피보다, 먼저 간 남편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함께 해서 영광이었고 지금도 그립노라고, 그는 말한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1965년부터 지도를 그리셨지요. 당시 우리나라 도법 기술은 일본 책을 트레이싱페이퍼에 그대로 베끼는 수준이었어요. 당시께서는 그때부터 펜을 잡아 새 도법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제 것으로 만드셨지요. 그 시간만큼 명성도 쌓여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일본에서 그이의 기술력을 배워갔으니까요.”

처음 등산지도 제작한 것은 1980년 오대산과 설악산의 지도를 만들면서부터다. 지도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등산지도는 이미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전부 엉터리여서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부부는 백두대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등산지도 제작에 뛰어들었다. 1982년 당시 유일한 등산지도였던 '코오롱스포츠' 시리즈를 만들고, 1984년부터 지금까지 <월간산>의 부록지도 제작을 담당해 제작하고 있다.

'직접 다녀온 산만 그린다.' 철저한 현장 답사를 거쳐 지도를 만드는 건, 고산자 후예들의 철칙이었다. 그네들이 나침반과 고도계를 들고 산을 올라 피와 땀으로 만든 지도는, 놀랍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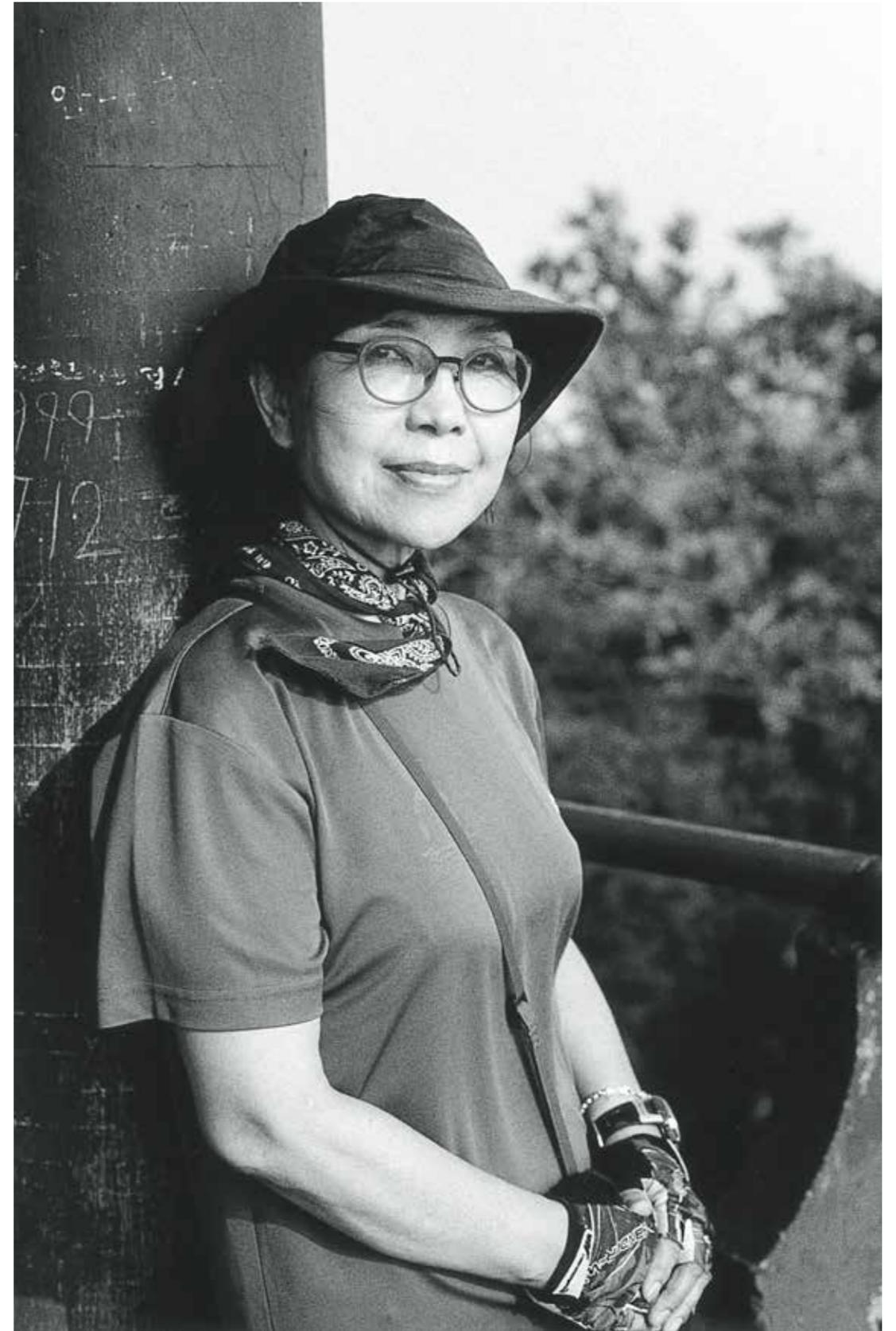
완벽했다. 산행 루트의 높낮이와 구간 거리, 이정표 등 산악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됐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도는 '생명'과도 같다. 하지만 산을 타는 사람들조차 그 가치를 잘 모른다고 했다.

“지도 팔아서 돈이 됐냐고요? 그럴 리가요. 아무리 좋은 지도를 만들어도 팔기는 힘들어요. 산악회 회원 한 명이 지도를 사서 모두에게 복사해서 돌려버리니까. 또 언제든 인터넷에서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대이니, 사람들이 돈을 주고 지도를 사는 데 인색해요.”

부부가 평생 지도를 그려 손에 남은 건, 20평대 아파트 한 채와 구로에 있는 30평대 공장 한 채가 전부였다. 그마저 돌아가신 부군께서 술 한잔 드시고는 제자들에게 기분 좋게 넘겨버렸다. 말아하던 지자체와 업체의 일도 함께 다 쥐버렸다. 아내에게는 왜 그리 욕심이 많느냐며, 아이도 다 키워놓았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선 아내를 홀로 두고 먼저 떠나버렸다. 하지만 아내는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남편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있다.

김 선생은 최근 용진군 북도면 등산로와 둘레길을 담은 지도를 펴냈다. 두 달여가 걸렸다. 섬을 샅샅이 둘러보고, 밤새 지도를 그리고 또 그렸다. 미심쩍다 싶으면 바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다. 돈이 안 되고 몸은 후들거렸지만, 힘든 줄 몰랐다. 오히려 즐거웠다. 다른 섬에도 욕심이 났다.

“인천은 축복받은 도시예요. 육지 가까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으니까요.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의 섬을 지도로 완벽하게 그려보고 싶어요. 인천의 섬, 섬 안의 산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인천 섬, 그 섬이 품은 높고 푸른 산을 오르고 싶어진다. 든든한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그의 지도를 손에 들고.



## 바람결에 실려 온 닭똥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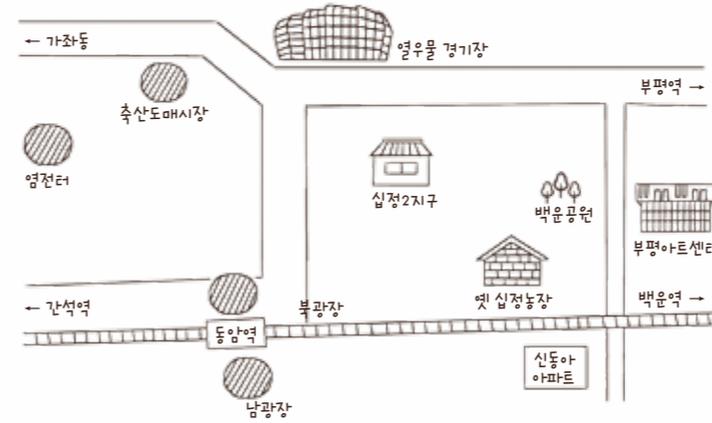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밭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호에서는 동암역 북광장 옆에 있는 빌딩 옥상에서 심정동 쪽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현지 편집장

- ① 열우물 동네 ② 심정2지구 ③ 심정농장 ④ 열우물경기장 ⑤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⑥ 인천축산물 도매시장 ⑦ 부평아트센터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까치밭을 든 자점 | 동암역 북광장 빌딩  
(부평구 동암광장로 14번길 4)

경인전철 백운역과 간석역 사이의 동암역은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했다. 동암역에는 남광장과 북광장이 있다. 남광장은 면적이 좁지만 만수동과 간석동 그리고 구월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하여 늘 복잡하다. 반대편 북광장은 상대적으로 넓다. 인근 공단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차량이 쉴 새 없이 광장을 돈다. 광장 부근에 가장 높게 솟은 14층 빌딩 옥상에서 먼 시야가 거칠 것이 없다. 이번 호에서는 북동쪽(심정동)으로 까치밭을 들었다.



동암은 '東岩'이 아닌 '銅岩'이다. 이곳의 주봉인 원통산은 붉을 '주(朱)자'를 써 주안산(朱雁山)으로도 표기되었다. 흙이나 바위가 모두 붉기 때문이다. 붉다는 것은 흙 속에 금속 성분이 있다는 것. 1960년 국립지질연구소가 굴착 탐사한 결과, 60% 이상을 함유한 고품질의 철광석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67년 이곳에 경인철광(주)이 설립된 후 17년 간 채광해 오다가 1989년 폐광했다. '동암'이라 부르기 전인 1960년대만 해도 바다 쪽으로 염전만 있을 뿐 인가가 거의 없는 붉은 산비탈의 불모지였다.



① 열우물 동네 : 십정동은 '열우물' 동네라는 이름으로 풀이된다. 우물 열 개가 있어서 십정동(十井洞)이란 이름을 얻었다는 설과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열(熱)이 나는 우물'이 있어서 '열우물'이란 설 그리고 산줄기가 십자형으로 교차한 형국(十丁)인데 이게 '十井'으로 변형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열우물은 인천에서 부평에 이르는 첫 마을이었다. 예전 인천 시내에서 부평을 거쳐 김포나 강화 길로 접어들려면 이곳을 거쳐야 했다. 배 밭과 염전이 있던 한적한 이 마을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동구 만석동과 주안 지역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떼밀려 들어왔다.

② 십정2지구 : 십정2지구는 지난 1995년 정부의 무허가 불량주택개선 정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됐던 지역이다. 이후 사업 포기, 재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현재는 지장물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급속도로 퇴락하고 있다. 부평구는 붕괴 위험 주택이 70곳에 가깝고 이 중 절반 정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90%를 넘는 등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다.

③ 십정농장 : 동암역과 백운역 사이 경인철도 변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부지는 당시 나환자들이 개간해서 일군 십정농장 터였다. 1998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농장은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철도 건너편에는 영세 공장으로 변한 그 잔재가 남아있다. 1950년대 초 지금의 인천가족공원(부평공동묘지) 위쪽 산속에 국립나환자요양원 '성계원'이 있었다. 1961년에 성계원은 음성(치유)환자들의 자립을 위해 이들을 십정동과 청천동 등지로 이주시킨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정농장으로, 개신교 신자는 청천농장으로 분리되었다. 그들 속에는 '파랑새' '보리피리' 등의 시로 유명한 '문동병 시인' 한하운(韓何雲)이 있었다.

- 1 '달동네' 십정2지구
- 2 십정농장 현재 모습
- 3 축산도매시장
- 4 십정농장 소·돼지 기증식(1962)
- 5 한하운과 십정농장
- 6 퇴락한 열우물 동네의 계단
- 7 열우물 체육관
- 8 부평아트센터
- 9 우리나라 최초의 염전 기념비

④ 열우물경기장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 테니스와 스쿼시 경기를 치렀다. 열우물경기장은 주변녹지로부터 흘러 내려온 이슬을 통해 비춰보는 테니스 라켓을 형상화했다. 약 20m 경사 및 남북 방향으로 45도가 틀어진 대지를 활용하여, 실외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고 관람석은 7천77석이다.

⑤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 십정동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소금밭을 품고 있었다. 바닷물이 동네 어귀까지 드나들었다. 구한말 융희 원년(1907년)에 소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정에서 1정보(약 3천평) 규모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시험지를 조성했다. 현재의 홈플러스 간석점 부근인 십정1동 558-7 일원이다. 산업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염전 일대는 1969년 수출 5·6공단과 인천기계공단으로 지정되었고, 결국 그 자리를 불도저로 밀어버려 소금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⑥ 인천축산물 도매시장 : 흔히 '십정동 도살장'으로 불렸던 곳으로 1983년 개설했다. 지난 2001년 이곳에서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도축공정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해 신뢰를 얻었다. 시장 안쪽의 인천도축장(삼성식품)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소 80두, 돼지 600~700두를 도축한다고 한다. 인천축산물백화점을 비롯해 골목골목 형성된 상회 등 현재 고기 판매점 130곳이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⑦ 부평아트센터 : 부평아트센터는 2007년 10월 착공해 2010년 4월 백운공원 인근에 개관했다. 연면적 1만7천300㎡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대공연장·소공연장·전시장·커뮤니티홀 등을 갖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야외옥상공연장인 별누리극장이 있다. 부평아트센터가 들어서기 전 이 터에는 기무사 부대 '송학사'가 있었다. 아트하우스가 송학사 건물이었고, 아트센터 자리는 기무사 운동장이었다.

**8**  
**영화상영**  
**‘아더와 미니모이 : 비밀원정대의 출정’**  
 인천평생학습과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11**  
**2015 인천섬머페스티벌**  
**관현악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1588-2341



**모두를 위한 음악동화**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전석 2만원  
 ☎888-8770

**13**  
**브런치 콘서트**  
**‘양상블 클라비어-4Men 8Hands’**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580-1163

**14**  
**황금.토끼 아르츠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시네마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15**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무료  
 ☎440-8640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춤의 향연 V**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

**청소년음악회 ‘어린왕자와 멜로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전석 1만5천원  
 ☎500-2000

**글라주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사계(四季) in 러시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전석 2만원  
 ☎580-1163

**19**  
**해설이 있는 오페라 여행**  
**콘서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888-9911

**2015 커피콘서트 8**  
**‘국립현대무용단의 춤이 말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1588-2341

**2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6회 정기연주회**  
**Collaboration Series I ‘씨네뮤직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1588-2341

**뮤지컬 ‘똥사개 복동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오후 1시 10분  
 1만5천원(단체 6천원)  
 ☎010-2898-0014

**황금.토끼**  
**KAWSAY와 함께 떠나는 인데스 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22**  
**인천신포니에타 〈밀회〉 ‘memories’**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3천원  
 ☎819-0505

**주혜정 피아노 독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010-7150-2253

**영화 상영 ‘닐스의 모험’**  
 인천평생학습과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23**  
**2015 정동하 전국투어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7만7천원  
 ☎1644-8552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7시  
 전석 3만원  
 ☎010-4365-5454

**27**  
**스테이지 149-어린이명작무대!**  
**‘우리는 친구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2만원  
 ☎1588-2341



**28**  
**스테이지 149-어린이명작무대!**  
**‘우리는 친구다’**  
 오전 10시  
 전석 2만원  
 ☎1588-2341

**29**  
**뮤지컬〈또봇〉 ‘태권K와 시간탐험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1566-6551

**스테이지 149-어린이명작무대!**  
**‘우리는 친구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2만원  
 ☎1588-2341

**황금.토끼**  
**헤이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420-2742

**30**  
**영화상영 ‘비행기 2 : 소방구조대’**  
 인천평생학습과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뮤지컬 〈또봇〉 ‘태권K와 시간탐험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1566-6551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  
**6th Concert ‘The Passion’**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010-8470-8501

**장수미 사진전**  
**‘섬, 바다 그리고 사랑’**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8월 26일~9월 7일



물결

<b>이 달의 展</b>	~ 8월 6일	그림나루 정기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8월 20일	야정 강희산 환강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8월 7일 ~ 8월 13일	인천가사회 회원사진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7일 ~ 8월 13일	그룹1279 정기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8월 14일 ~ 8월 20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 무궁화 사진 작품 전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14일 ~ 8월 20일	제17회 그림벗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8월 21일 ~ 8월 27일	2015 글로벌 서각 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8월 21일 ~ 8월 27일	제9회 빛과향기 회원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8월 26일 ~ 9월 7일	김진란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8월 26일 ~ 9월 7일	장수미 사진전 ‘섬, 바다 그리고 사랑’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8월 28일 ~ 9월 3일	봉황 그리고 어울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28일 ~ 9월 3일	김재원 개인전 ‘자연을 만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28일 ~ 9월 3일	한중 서예 국제 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클래식은 쉽고, 즐겁다!**

'클래식은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한 '섬머페스티벌'이 5년째를 맞아 더욱 풍성한 기획으로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잘 짜인 프로그램과 친절한 해설로 지난 4년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섬머페스티벌>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만5천명이 관람했으며, 특히, 2013년 6회 공연 매진, 2014년 7회 공연이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는 청소년음악 페스티벌로는 국내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다.

올해는 '연주형태별 음악회'로 구성해 서양음악의 연주형태별 특징을 알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공연장에서는 2관 편성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관객들을 맞이하며, 소공연장은 피아노 독주, 목과 5중주, 현악 4중주, 성악 2중주 등 실내악 음악으로 꾸며진다.

싼 관람료로 수준 높은 연주를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섬머 페스티벌'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클래식 입문자에게도 좋은 공연이다.



**섬머페스티벌 일정**

일자	시간	공연제목	장소
8월 11일(화)	오후 5시	관현악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공연장
	오후 3시	독주회 <피아니스트 허원숙>	소공연장
8월 12일(수)	오후 5시	오페라 갈라 콘서트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공연장
	오후 3시	목관 5중주 <뷰에르양상블>	소공연장
8월 13일(목)	오후 5시	합창음악 <인천시립합창단>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현악 4중주 <서울스트링콰르텟> with 피아니스트 강충모	소공연장
8월 15일(토)	오후 3시	피아노 3중주 <권순훤과 친구들>	소공연장
8월 16일(일)	오후 3시	성악 2중주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정꽃님>	소공연장
	오후 5시	교향악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공연장

**무용가들의 생생한 몸짓과 목소리로 듣는 춤 이야기**

8월 커피 콘서트는 한국무용, 발레, 스트리트 댄스, 현대무용 등 서로 다른 장르의 무용가들이 모여 춤과 이야기를 나눈다. 춤의 정의에서부터 신체의 활용, 각 장르에서 부딪치는 현실적 고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넓고도 깊게 전개된다. 무용가들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춤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성의 현장, 현대무용의 동시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무대가 될 것이다.

**커피콘서트**

**국립현대무용단의 '춤이 말한다'**

일시 8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1588-2341



**무궁화의 아름다움이 물씬**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광복절을 맞아 인천시와 인천산림조합 주관으로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무궁화사진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년 전부터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작업을 해온 인천의 중견사진작가 오인영과 장영진의 무궁화사진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무궁화는 험난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고 오늘의 번영을 일군 우리 민족의 얼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화다. 이번 전시회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광복 70주년 기념 무궁화 사진 전시회**

기간 8월 14~20일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참여 오인영 작가, 장영진 작가



**名作,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수그러지는 8월 하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야외영상무대 '스테이지 온 스크린'이 2015년 더욱 더 강력한 라인업으로 찾아온다. 오페라와 뮤지컬, 발레를 아우르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8개의 공연실황이 530인치 대형 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우선 첫째 주인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발레와 두 편과 프랑스 뮤지컬 두 편이 상영된다. 프랑스 3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막을 열고, 모던발레의 거장 롤랑 프티의 젊은 시절을 대표하는 두 편의 걸작 '젊은이와 죽음, 카르멘'을 시작으로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화려한 라틴음악과 플라멩코가 덧붙여져 매혹적인 뮤지컬로 재탄생한 '돈 주앙'이 강력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둘째 주 9월 2일부터 5일까지는 '라 보엠', '토스카', '예브게니 오네긴', '돈 파스칼레' 등 4편의 오페라를 상영한다.

올해에도 달빛이 머무르는 너른 광장에 친구, 연인 또는 가족과 최고의 공연영상을 즐기며 한여름 밤의 낭만과 여유로움을 만끽해 보자.

**名作,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Stage on Screen**

일시 8월 26일(수)~9월 5일(토)  
 (수·목·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무료  
 문의 ☎420-2731(공연기획실)



## 미국서 보낸 젓소 4두, 돼지 4두 화랑농장에 할당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될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_편집자 주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쥐잡이 위해 고양이 기르자

고양이는 사료를 많이 먹는 동물이 아니고 항상 쥐를 많이 잡아먹는 동물이므로 고양이를 많이 기르도록 한다. 각 통 반을 통하여 현재 기르고 있는 고양이 실태를 파악하고 현존하는 고양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동 및 출장소에서는 고양이의 장려 방법과 번식시키는 방법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고양이 집단지를 조사해 보고한다. 고양이는 항상 너무 귀여워하지 말고 식물을 많이 주지 않으며 자연 쥐를 잡아먹는 습관을 만들도록 한다. (1953년 6월 3일자)

### 모라(몰아)내자 오랑캐, 구출하자 북한동포!

광복절 제 9주년 경축 기념 및 이 대통령 재취임 제 2주년을 기념하는 인천시민대회는 상오 10시 반 내려 짙는 폭양을 무릅쓰고 운집한 8만 시민의 열의로서 장엄하게 전개되었는데 국토 통일을 앙망하는 소리 충천(冲天)에 메아리치고 대한민국 주권 확립에 갖은 만행으로 피해를 입삼고 있는 공산도당의 철저한 분쇄를 외치는 소리는 뜨거웠다. (1954년 8월 21일자)

### 빙수·빙과 제조업자 취체

혹서가 계속되는 요즘 날씨를 기화로 일부 영리에만 급급한 빙과자 빙설업자들이 위생상 극히 불량한 제품을 다량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8월 17일부터 3일간 일절 취체를 단행한 결과 다량의 영업 도구를 수거하였다고 한다. 더욱 업자들 중에는 무허가 행상인을 다수 고용하여 조제품을 다량 공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이러한 행위를 앞으로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행정적인 조치도 불사하리라고 한다. (1954년 8월 28일자)

### 가축시장 장소 물색 중

현재 인천시 가축시장은 주택지대인 송월동에 자리를 잡고 있어 시민 위생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시 당국에서는 이를 이전하고자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도시 경영면에 합치되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 대단한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1955년 8월 1일자)

### 가축 인수식 성대

미국 텍사스주 4H구락부에서 한국4H구락부에 보내 온 가축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실비아 라



1952년 도원구장에서 열린 6.25 멸공통일의 날 인천시민대회

이크즈호의 환영 및 가축 인수식이 어제 31일 상오 11시 30분부터 작약도 앞바다에 정박 중인 동선상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들 텍사스에서 온 카우보이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농림부 축정국 일행, 미 대사관 일행, 서울특별시 대표 일행, 경기도지사 이익행 씨 및 인천시장 김정렬 씨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인천항에 입항한 가축은 유우(乳牛) 80두, 돼지 147두, 산양 51두, 노새 2두, 그리고 구호물자 637개라고 한다. 그 중 인천시분은 유우 4두, 돼지 4두가 할당되었다고 한다. 이는 부평화랑농장 내의 4H구락부와 산곡동 4H구락부에 각각 배당할 것이라고 한다.

(1955년 8월 1일자)

### 납량(納涼) 음악회 대성황

인천시 합창단 주최 제 37회 음악감상회는 예정대로 지난 17일 하오 7시부터 송림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0회째의 실연 음악회인 이날은 400여 명의 음악 팬들이 모인 가운데 바이올린 이재현, 첼로 양재호, 피아노 최성진 박준수, 테너 양윤식 제씨가 열연을 거듭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1955년 8월 19일자)

### 북항 굉이부리 잔교 곧 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인천북항(굉이부리) 잔교 공사는 300만환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8월 말

일을 준공 예정일로 정하고 그동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동안 계속되던 장마와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다시 속공하기 시작하여 19일 현재 90%의 공사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금명간 길이 30미터 폭 3미터의 잔교가 승선객을 위해 개방될 것이다.

(1955년 8월 22일자)

### 어민 위안 영화상영

인천시에서는 지난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어련 위관장 및 화수동 부두에서 '어민 위안의 밤'을 베풀고 최근의 어촌 생활 현장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여 어민들의 노고를 위안하였다.

(1955년 8월 29일자)



54년 8월 14일자에 실린 인천시 신악회 주최 팔미도 탐방 사진촬영 기행 광고. 만석부두에서 집합하고 점심은 각자 지참하며 여흥시간으로 '보물찾기'가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 ‘인천을 스마트 물류거점으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동북아 물류 허브’ 인천이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거듭난다. 또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한중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인천에 구축된다. 우리시는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시장, 최양희 미래부장관,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인천은 개항기부터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녹색기후기금(GCF) 등 13개 국제기구가 입주하면서 동북아 물류

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 센터가 스마트 물류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2천293㎡ 규모로 미추홀타워 7층 본원(1천316㎡)과 제물포스마트타운 본원(977㎡)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인천의 물류 인프라와 한진의 물류 노하우를 결합, 인천을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지난 1883년 개항이후 국제교류의 관문 역할을 해온 인천의 전통 물류산업에 I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 실시간 위치추적, 무인항공기 배송, 온도·습도 제어 운반, 공항 및 항만 시스템 자동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시·한진그룹의 지원과 창조경제혁신펀드 등으로 총 1천5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3개 분야 7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인천창조경제센터의 출범으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출범하게 됐으며 이는 지난해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 확대 출범 이후 310일 만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수요와 전담기업의 전략분야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창업과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문의 시 경제정책과 ☎440-3272

유정복 시장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 여름 휴가지를 인천의 섬으로 선택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25~26일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장봉도 웅암해수욕장에서 직접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다. 저녁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주최로 열리는 ‘가족 힐링캠프’에 참석해 시민, 관광객들과 함께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고 콘서트를 즐기기도 했다. 유 시장이 여름 휴가지로 장봉도를 택한 것은 올해 역점 추진사업인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에 힘을 실기 위해서다. 또 인천시장이 섬을 먼저 찾아야 관광객도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우리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들이 준비한데도 홍보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인구 상당수가 동해나 남해로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보고, 지난 3월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한편 우리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멀리 가지 않고도 천혜의 자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올 여름 휴가는 청정구역 인천으로’ 캠페인과 함께 ‘가족 맞춤형 추천 여행지 30선’을 선정해 일선 학교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45

### 올해 휴가는 ‘인천 섬’에서 즐기세요~



###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1MW 첫 돌파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처음으로 1MW(메가와트)를 돌파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달 11일 가좌사업소 등 5곳에 총 605.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준공, 기존 다른 사업소와 합쳐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이 1천7kW(1천007MW)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1년 강화사업소에 62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처음 설치한 이후 청라·공촌·송도사업소 등지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왔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전력 비용 1억5천400만원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61t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공촌사업소와 영종사업소에 120kW급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환경공단 ☎899-0155

### 주정차 위반 ‘문자’로 알려드려요

우리시는 이번 달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고정식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주차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리고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시는 단속구역인 줄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발적인 주정차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하며 이동식 CCTV 단속, 인력 단속, 즉시 단속 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parkingsms.incheon.go.kr)나 구청 교통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시 교통관리과 ☎440-3906



### 중국에 인천의 매력을 보여주다



우리는 중국 현지인들에게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라오닝 TV를 초청해 아리랑 TV와 합작으로 인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현지에 방영한다.

인천 특집 프로그램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비롯해 경인아라뱃길, 강화도, 소래포구, 을왕리, 부평지하상가 등 인천 전역에서 촬영했다. 이번 인천특집 프로그램은 '메르스 청정지역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줘 더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인천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중국의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을 맞아 9월 초 라오닝 TV채널에 특집으로 편성돼 50분간 방영할 예정이다. 문의 대변인실 ☎440-3092

### 인천~서울 BRT 운행횟수 늘린다

인천 청라~서울 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7700번)의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배차간격도 단축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수도권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서울 BRT 운행횟수를 현재 평일 67회에서 72회로, 휴일 54회에서 60회로 늘렸다.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15분에서 10분으로, 평시에는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했다.

2013년 7월 개통한 BRT는 청라에서 서울 강서까지 15개 정류장, 23.1km 구간을 운행하며 편도 50분 정도 걸린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451-2114

### 청라에도 이제 수상택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를 가로질러 배를 운항하는 주운(舟運·배 운항) 시설이 연말에 준공, 그 위로 내년부터 수상택시가 다닐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3일 청라국제도시 입주자단체와 수로, 선착장 등의 주운시설을 합동 점검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과 접수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인 한국도지주택공사(나)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주운시설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중심부에 동서로 3km(폭 10m), 남북으로 1.5km(폭 5m)의 수로를 만들고 선착장 12곳과 갑문, 배수로, 물순환 시스템, 수질정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682

### 장애인 바우처 택시, 내년 120대 도입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 장애인 바우처 택시 120대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특장차) 140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총 168대가 운행하고 있다. 매년 이용객이 늘어 작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1천164명에 달했다. 시는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 9억 원을 들여 바우처 택시 12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장애인의 연락을 받으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 택시는 기존 장애인 전용 택시와 마찬가지로 이용객에게서 요금의 약 20%만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받는다.

문의 시 택시화물과 ☎440-3802

### 월미은하레일 내년 8월 개통 예정



월미은하레일을 관광용 소형 모노레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오는 10월 시작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인허가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6일 보강공사에 착수하기로 사업 시행사인 가람스페이스와 협의를 마쳤다.

월미모노레일은 무인 자동운전시스템으로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 외곽을 순환하는 총 6.1km 구간이다. 차량은 길이 3m, 폭 1.7m, 높이 2.15m 규모로 8인승이다. 최대 3량까지 연결해 운행한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451-2167

우리는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생활폐기물 소각열을 송도국제도시 지역방방용 에너지로 공급한다.

시는 미래엔에너지·인천종합에너지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공급 네트워크를 송도자원환경센터와 연계, 지난달 24일부터 소각열을 냉방용 에너지로 전환해 공급하고 있다.

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열로 냉방하면 여름철 전력 부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사용 소각열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판매, 연간 5억5천만원의 재정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자원순환과 ☎440-3582

### 소각열로 송도에 냉방에너지 공급

인천소방본부가 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의 사진·영상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인천소방본부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개발했다. 이 앱만 깔면 후속 출동 대원들도 모바일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난 대응을 신속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2013 인천전국체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전국 시·도 소방안전본부가 이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문의 인천소방본부 ☎870-3010

### 인천소방 스마트안전시스템 전국 확산



##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집회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의원 30여 명이 지난달 13일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은 차세대 젊은이에게 굴절된 역사 인식을 심고,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위기감을 조장하며, 평화적 우호관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다음달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후 4년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할 때, 적어도 인천의 자매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만큼은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6월 16일 정례회에서



채택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문’을 이날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사관 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일본 교과서 왜곡에 반

대하는 한국·일본 시민단체가 시의회를 방문,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왜곡 교과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 인천관광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4일 22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우선 인천관광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인천시 공기업 등·폐합 때 인천도시공사에 통합한 지 4년 만에 독자적인 기관으로 부활하게 됐다. 주민세를 8월부터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73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의회 휘장 한글로 바뀌

인천광역시의회가 한자로 표기한 의회 휘장을 한글로 바꿨다. 인천시의회는 한자 ‘議(의)자로 표기한 의회 휘장을 한글 ‘의회’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와 의원 배지 교체 작업을 마쳤다. 시의회는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 의회 청사와 본회의장 등에 설치된 기존의 한자 상징물도 한글로 바꿀 계획이다. 노경수 시의회 의장은 “한글 사랑에 지방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휘장을 한글로 바꿨다”면서 “한글을 사용하여 의회가 시민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흥화력발전소 현지시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달 3일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앙제어실과 수력, 풍력 및 태양광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각 에너지 시설 운영에 따른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중점 질의했다.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 중국 허난성 관광객 인천서 한류체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제7대 임기 시작 후 해외도시로는 처음으로 중국 허난성과 자매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의향서 체결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허난성 주민 80여 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인천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허난성 최대 규모의 CTS 여행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월 합작해 선보인 ‘2015 한류 별그대 in 인천+뷰티월빙 투어’ 코스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에서 관광객들은 드라마 촬영지인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대뿐만 아니라, 수륙양용버스 체험 등 인천의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했다.

## 인천 YMCA 선정 우수의정활동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김정현·박승희·신영은·이도형·이용범·이한구·황흥구 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지난달 7일 YMCA 4층에서 개최된 의정활동상 수여식에서 ‘인천 YMCA 선정 우수 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인천 YMCA는 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1년간 의정활동을 자체 평가한 결과 의원 7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이 상을 수여했다. 인천 YMCA는 의정활동상 선정에 대해 “YMCA 시민위원회와 의정참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의원 출석률, 시정 질의, 조례 발의 건수, 조례 내용, 수상 경력 등의 평가지표를 분석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영은 의원 ‘2015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 수상

신영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은 언론사 내외통신, 코리아뉴스, 다이나믹코리아의 주최로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선도한 혁신적인 기업 및 참된 기업가,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우수 의원 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광역의회 의정부 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 의원의 이번 수상은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시의원에 취임한 후,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지역을 발로 뛰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한 결과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사재를 털어 사단법인 인천복지를 설립해 노인, 청소년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여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 “재정 어렵지만 ‘시민생활’ 예산은 꼭 확보”

■ 손철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천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여 인천시의 어려운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직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최근 예산편성의 성격을 보면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법·의무적 경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줄었지만 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꼭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인천시가 지난 수년간 재정이 어렵다는 인식만 부각했지 부채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드러내기 보다는 지정학적이나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인천을 보여주고 인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야 투자도 잘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손 위원장은 5,6대 부평구 구의원을 거쳐 제7대 시의회에 입성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활동은 많지만 특히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중 부상자 및 상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이 뿌듯하다. 그는 그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5천만원을 경제적



약자에게 지원한 바 있다.

손 위원장의 지역구는 원도심이다. 어르신들이 많아 부모님 같고 형제 같은 분들이 사는 동네이기에 친근하고, 정겨움을 느낀다. 지역주민들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보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손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원도심의 발전을 바란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출구전략과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다. 지역과 주민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그가 실천하며 살고 싶은 세상이다.

###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갈산동을 흐르는 굴포천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먹감고 고기를 잡던 추억이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겁거나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7대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입니다. 지역구가 야당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저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감사했고 지역발전으로 보답할 생각입니다.

**외지인들에게 인천의 명소 세 곳을 추천한다면 어디를 강추하시겠습니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부평지하상가, 6,70년대 수출전진기지였던 부평공단, 생태자연학습장인 인천 나비공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취미활동 하는 게 있으신가요?**

취미로 붓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정신을 가다듬는 데 좋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한 느낌이나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연평해전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장품과 그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늘 그리웠습니다. 아버님이 보시던 ‘명심보감’, ‘천자문’을 간직하며 체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아닌 개인으로 올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주민들이 활짝 웃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 “청렴과 도덕성이 살아있는 의회로...”

■ 김경선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청렴이란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대 의회 제2기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선(63) 위원장은 의원 개개인이 청렴해야 300만 인천시민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작년 10월 제정된 의원행동강령을 시의원들이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믿으며,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존경받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해 한걸음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잘 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분기별 간담회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전보다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 청렴과 도덕성을 확고하게 심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흑시라도 윤리위원회가 열릴 만한 사건이 생기면 해당 의원을 조사하고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승봉도가 고향인 김 위원장은 웅진군의 섬은 안가본 곳이 없는 인천 섬 전문가다. 섬 주민들을 만나려면 이동 거리가 길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자주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



며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다. 섬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활동 말고도 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천시 전역의 위험, 취약시설을 직접 돌아본 경험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또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 만들기에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이유는?**

승봉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모래가 아름답고 해송이 울창한 힐링의 섬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거나 기억나는 일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정치하기 전 기업에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것도 관리 분야에서만 일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람과 공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외지 사람들에게 인천의 명소 세 곳을 추천한다면?**

대청도, 대이작도, 승봉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청도는 옥죽동 뒤쪽 모래사장이 아름답고, 대이작도는 깨끗한 섬이며, 승봉도는 울창한 해송이 그만입니다.

**특별한 취미활동이 있으신가요?**

등산을 자주하는 편이고, 평소에 1만5천보씩 걷기를 합니다. 55분 동안 10km씩만 뛰는 마라톤도 취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본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에 대한 느낌과 감동적인 장면을 설명해 주세요.**

연평해전을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장품과 그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책인 ‘Tom and Judy’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50년 정도 됐지요. 이 책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느꼈고, 지금 저의 영어 실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개인적인 소망은 무엇인지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독학했습니다. 어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8월 시원한 문화프로그램**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8월을 맞아 '인천도시건축학교 : 인천근대 건축물 캐릭터 수첩만들기'를 비롯하여 인천의 꿈을 찾는 도시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천도시건축학교**

- 강의일정 : 8월 4~14일(매주 화~금) 오전 10시~12시 총 8회
- 강의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전시관 및 교육프로그램 강의실
- 강의대상 : 초등학교
- 수강접수 : 7월 21일(화)부터 전화 신청(선착순 마감, 회당 선착순 15명)
- ※ 개인 참가자 전화 신청

문의 850-6016

NO	일시	대상	인원 (명)	내용
1	8월 4일(화)	초등학교 저학년	15	
2	8월 5일(수)	초등학교 고학년	15	컴팩스마트시티 전시관 관람
3	8월 6일(목)	초등학교 저학년	15	인천 근대 개항기 건축물 배우기
4	8월 7일(금)	초등학교 고학년	15	인천근대 건축물 캐릭터 수첩 만들기
5	8월 11일(화)	초등학교 저학년	15	
6	8월 12일(수)	초등학교 고학년	15	발표
7	8월 13일(목)	초등학교 저학년	15	단체사진 촬영 등
8	8월 14일(금)	다문화 센터	15	

**인천의 꿈을 찾는 도시학교**

- 강의일정 : 7월 25일(토)~12월 19(토) 10시~11시 30분 (총 6회 : 7월 25일 8월 22일 9월 19일 10월 24일 11월 28일 12월 19일)
  - 강의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교육프로그램 강의실(4층) 및 전시관
  - 강의대상 : 초등학교 3~4학년생
  - 수강접수 : 이메일(ouder00@korea.kr)접수, 선착순 마감(날짜별 모집)
  - 접수기간 : 7월 6일(월)부터 (매회 20명 이내)
  - ※ 수강 신청 미달 시 추가 모집
- 문의 440-4422

**가을에 열리는 풍성한 문화강좌**

미추홀 문화회관은 다가오는 제57기 가을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재능기부특강과 무료특별기획 강좌는 물론, 알짜배기 1일 무료특강, 단기특강들이 진행됩니다.

- 강좌기간** 8월 31일~11월 21일(3개월)
- ※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 접수기간** 7월 27일~9월 5일
- 장소**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 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의** 765-0220, 0250, mchart.co.kr, twiter.com/mchart0250

**치매·정신 공동 학습 심포지엄 개최**

인천광역시치매센터와 인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과 치매의 하이브리드 모델사업인 '트윈 프로젝트' 통합 서비스망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인천광역시 치매·정신 공동 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주제** 고령사회의 정신건강과 치매
- 일시** 8월 28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장소**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11층 가천홀
- 대상** 정신보건 및 노인 유관기관 실무자, 관련 공무원, 학생 및 수련생
- 평점인정**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수련생,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및 수련생, 정신보건간호사 수련생
- 참가신청** 인천치매센터 또는 인천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472-2029, 468-9911

**광복 70주년 기념 '打&Rock 콘서트' 등 열려**

인천시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8월 15일(토) 오전 9시 45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내용 : 기념식 및 경축 콘서트

행사 내용	시간	진행
식전공연	09:45~10:00	15분 일렉톤 연주(미술기)
기념식	10:00~10:30	30분 -
경축 콘서트	10:30~11:20	50분 인천시립교향악단

**광복 70주년 기념 '打 & ROCK 콘서트'**

- 일시 및 장소 : 8월 13일(목) 오후 7시~8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내용 : 국악과 양악으로 구성된 콘서트, 풍물패 타악 퍼포먼스 등

**광복 70주년 태극기 뭉 행사**

- 일시 및 장소 : 8월 15일(토) 오전 9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내용 : 만세 거리행진 및 태극기 퍼포먼스, 독립군 체험, 태극기 나눠주기 등

**나라꽃 무궁화 전시 및 묘목 나눠주기**

- 일시 및 장소 : 8월 15일(토) 오전 11시~12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
- 내용 : 무궁화 묘목 500본 나눠주기(1인 1그루, 선착순) 무궁화 전시 등

문의 440-2213

**통일주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인천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인천지역 대학생에게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통일주제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 남북교류
- 참가자격** 인천 소재 대학생 및 휴학생, 타 지역 소재 대학생 및 휴학생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있는 이
- 응모기간** 9월 1일(화)~8일(화) 오후 5시 (통일교육 인천센터 메일로 접수 : unieduincheon@hotmail.com)
- 시상내역** 총상금 700만원
- 대상(1) 300만원, 우수상(1) 200만원, 장려상(2) 각 100만원
- 문의** 440-8578, 남북 교류팀



**2015년 계양산자연학교 하반기 참가자 모집**

계양산자연학교에서는 생태놀이 및 숲교육을 통해 계양산과 자연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정** 8월 30일, 9월 20일, 10월 25일, 11월 29일, 매월 1회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계양산 목상동 일대
- 대상**
  - 성인반 : 회원 및 일반 시민 입금 선착순 15명
  - 가족반 : 회원 및 일반 시민 입금 선착순 6가족(가족반 프로그램은 유치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제** 9월-나눔, 10월-다양함, 11월-비움, 12월-섬
- 참가비**
  - 성인반 : 2만원(회원) / 4만원(비회원)
  - 가족반 : 3만원(회원) / 6만원(비회원)
- 계좌번호** 인천녹색연합 / 농협 / 146-01-111032
- 문의** 548-6274, (담당 활동가 신청은 010-6292-4430)

**2015년 무한상상실 상상탐험대 'BLOCK'**

울목도서관에서는 무한상상실 거점기관인 인천대학교와 함께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3D프린터로 직접 만들어 조립하는 'BLOCK(블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제목** 2015년 무한상상실 상상탐험대 'BLOCK'
- 운영기간** 8월 4일(화)~7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
- 장소** 인천대학교 무한상상실
- 대상** 초등 4~6학년 20명
- 참가비** 무료
- 주요내용**
  - 블록으로 상상한 것을 창조하는 스토리텔링형 수업
  - 블록으로 대원중 만들기, 간단한 기계장치 및 도구 조립 등 창의력, 논리력,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레고 아이디어북, 레고무비 등을 관람하고 3D프린터로 직접 블록을 만들고 과학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 문의** 770-3806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온라인 시민참여광장 운영**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참여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7월 1일~9월 30일(3개월)
- 대상** 인천시민(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
- 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주관**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 의견수렴 내용**
  - 거주(소유, 기타)지역 여건과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여부
  - 인천시 도시재생 비전 및 방향성
  - 인천시 도시재생 현안사항
  - 도시재생 추진 시 시민 참여 방안
  -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 온라인 시민참여광장 바로가기** 218.38.221.207

**황규백개인전 '꽃'**

-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는 8월을 맞아 '황규백개인전'을 엽니다.
- 일시** 8월 7~19일
- 장소** 사진공간 배다리
- 문의** 010-5400-0897

# { INFO BOX }

## 2015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 완화

인천시는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융자계획

구분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규모	한도	금리	상환기간
유통 경쟁력 강화 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자로서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점포시설 개선 및 연계 운영자금	융자 총액 40억원	업체당 3천만원	1.8% (변동금리)	4년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 융자조건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완화 내용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자로서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자로서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소득제한 없음
대상사업	점포시설개선 및 창업자	연계 운영자금	변동 없음
융자한도	(2천만원 한도) 기존 사업자 (1천만원 한도)	업체당 3천만원	한도 증액
대출금리	연 1.95%(변동금리)	연 1.8%(변동금리)	변동금리 적용
융자기간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변동 없음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제외
접수처	군구 지역경제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절차 간소화
기타	중복지원제한	메르스 직·간접피해자 중복지원가능	메르스 피해자 중복지원

### 융자신청

- 접수기간 : 7월 1일~11월 30일
-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지점
- 융자취급은행 : 신한은행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

남동지점 260-1500~2, 부평지점 508-1954~7, 서인천지점 569-0321~4, 남부지점 889-3611~4, 계양지점 542-3911~4, 중부지점 766~8090~3  
생활경제과 440-4224

## 인천방송 월별 이벤트

시민참여형 미디어 '인천방송'에서는 채널운영 활성화 및 채널운영자 대상 콘텐츠 제작 독려를 위해 월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 기간** 7~12월, 6개월간 매월 개최

**이벤트 대상** 모든 채널운영자(신규 채널 포함)

**진행 방법** 인천방송(incheonnntv.com) 채널 내 월 4개 이상 콘텐츠 등록 시 이벤트 자동응모(별도의 이벤트 신청절차 없음)

**선정 방법** 매월 등록 콘텐츠 수에 따른 차등 선정

**제공 상품** 총 50개 채널 선정(매월)

**문의** 440-3273

## 자녀에게 '나눔'을 선물해 주세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녀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한 '나눔아이(나눔을 실천하는 아이)기부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나눔, 자녀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 참여방법

- 자녀의 이름으로 매월 5천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
-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검색창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검색 또는 본회 홈페이지 ic.chest.or.kr 로 접속해 좌측 하단의 '나눔아이기부신청'버튼을 누른 후 신청

### 세금혜택

- 성금은 소득세법 34조 2항 1호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

**문의** 456-3311

## 내 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임대보증금) 대출

(사)미소금융 인천지역지점은 인천지역의 내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내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전환보증금 2천만원을 대출하면, 월세 2년 기준하여 140만원이 절약됩니다.

### 대출자격

- 신용등급 7등급 이하(5, 6등급도 상담가능)
- 지역간강보혐료 월 7만5천116원 미만인 분
-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

### 대출조건

- 2천만원~연 2.5%
- 인지대 등 수수료 전혀 없음.

**문의** 573-5014, 5015, 5016

#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 송도유원지에서 뱃놀이하던 추억

인천은 곳곳에 추억이 스민 도시입니다. 지금은 국제도시로 변모한 송도, 그 옛날 유원지에서 가족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던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권순남 남동구 선수촌로



## 문학경기장, 어린이축제한마당에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오빠와 어린이 날에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어린이축제한마당'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문학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도 관람하고 얼굴에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게임에 참가해 사인볼도 받았지요.

정민정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 30여 년 전, 선거철 풍경

30여 년 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절, 계양구 작전 2동 동양아파트 주변 풍경입니다.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벽보가 당시 상황을 보여주세요.

김유진 전라북도 전주시



## 이제는 나도 '아~ 옛날이여'

얼마 전에 전철을 탔다가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알차요. 진작 알았으면 매달 보았을 텐데. 내친김에 독자 사진에도 응모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송도유원지로 나들이 갔을 때입니다. 언제나 젊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도 '아~ 옛날이여' 하는 세대가 되어가네요. 황아람 남동구 호구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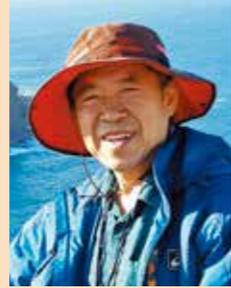
##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마음은 한 마리 제비가 되어

글 황재순 전 부개고등학교 교장(문학박사)



아침에 지인들과 문학산에 올라 정상 근처 쉼터에서 팍을 닦으며 준비해 온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마시니, 팍도 금방 식어 버리고 이제야 비로소 저 멀리 바다 경치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게 인천대교이니까 저기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굴뚝이고 저기부터가 팔미도 무의도 영종도가 주르륵 붙어 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비행기 한 대가 또 내려간다. 옛날 고려 시대 때에도 강남 가는 제비들이 저 쪽으로 우르르 날아가면서 보라색 빛깔이 번쩍번쩍하곤 해서 저 섬 이름을 ‘자연도(紫燕島:자색 제비의 섬)’라고 했다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강남은 그제나 지금이나 양자강 남쪽을 이르는 말이고, 당시의 제비만 지금의 비행기로 바뀌었을 뿐이구나, 그리고 보면 국제공항으로서는 저 자리가 천 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이네... 그런데 그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영종도라 그랬을까? 병자호란 때에 인조 임금이 강화도로 피란 가려 했는데, 지원 체제가 미비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란 가 그 망신을 당하셨다면, 효종 임금 때 화성 남양에 있던 영종진이라는 군부대를 자연도로 옮겨 와서는 유사시에 임금님의 강화도 피란을 원활히 도운다나 어쩐다나 뭐 그랬다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다가 숙종 때에 부평 마장면(馬場面:산곡동) 말 목장 등의 말들을 용유도와 무의도로 옮기면서 자연도의 영종진 군인이 조금씩 늘어났고, 영종진 선착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영종 갔다 온다느니 어쩌고 하는 사이에 섬 이름이 그냥 ‘영종도’로 바뀌어 버렸다네요.

그리고 보니 저 공항이 들어 서기 전에 연안부두에서 두 시간도 넘게 배를 타고 가서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

장에 도착했던 기억이 난다. 가는 길에 팔미도 등대도 보고 무희의 드레스 같다는 무의도(舞衣島)와 그 앞의 꼬마 섬 실미도를 보았던 기억도 나는군. 지금은 잠진도까지 버스로 다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영종-삼목-신불-용유도 사이의 염전, 갯벌과 얇은 바다를 모두 메우고 비행기 이착륙 시에 걸리적거린다고 해말 50미터대로 깎아내야 한다면서 장작터미처럼 뻑뻑하던 신불도(薪佛島)의 나무숲과 삼목도의 세 봉우리를 마구 쳐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나왔는데...

내년에 인천공항 신청사가 또 개통된다고 하니 신불 IC와 삼목 사거리가 교통체증으로 막히기 전에 얼른 삼목도 선착장으로 가서 장봉도나 한번 다녀오자는 쪽으로 확 바뀌어 버렸으니... 아이 참, 나...

이런저런 생각에 흠뻑 젖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분위기가 깨는 소리가 들린다. “자, 커피 다 먹었으면 이제 내려 가자고.” 그럼 한 마리 제비처럼 훌쩍 날아 저 장모시신(장봉도-모도-시도-신도) 위로 지나가 보는 것 또한 다음으로 미루어야겠군.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삼인행(三人行)이면 필유아사언(必有我師焉)이라 ”

- 공자 논어(論語)에서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느니라. 그 세 사람 중... 나보다 나은 한 사람을 보고서는 내가 좋은 점을 따라서 할 수 있으니 나의 스승이라 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한 사람을 보고서는 내가 나쁜 점을 고쳐 나갈 수가 있으니 역시 나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발전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길을 비키시오”

차량도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실려 있는 물건들도 신기하지만

두 차선을 차지하고 활보 중인 리어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도심에 방물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달려 있는 물건의 가짓수는 수백 개는 족히 될 듯합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천냥하우스’ 혹은 ‘다이소’입니다.

- 중구 신흥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